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인물]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임수중-김정빈
- ▶◀ [청소년뉴스] 청소년 콘텐츠 시장, 유튜브 영향력 TV 압도
- ▶◀ [학교소식] 진명여중 우간다 신생아 모자, 뜨개질로 만들었어요
- ▶◀ [맷캉년맷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제일여고 2학년 3반!
보고싶다 경해여고 2학년 11반 친구들아~
벌써 잊진 않았지? 진주고 1학년 4반!
- ▶◀ [틴틴이슈] 게임중독은 질병일까? WHO 방침 찬반 가열
청소년 전용 클럽 부활
- ▶◀ [19금 파헤치기] 잘못 알고 있는 성상식, 바로 잡습니다!



- ▶◀ [특집] #Me Too 운동, 청소년도 With You
- ▶◀ [필통뮤직차트] 청소년 평점 봄노래 CHART!
- ▶◀ [글로벌미팅]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 카스완디를 만나다
- ▶◀ [필통 상식] 글을 쓰다가 맞춤법이 헛갈린다면?
- ▶◀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 최고 디제트를 찾아라
- ▶◀ [궁금타파] 현열, 그것이 궁금태! 진주 현열의 집을 찾아서
- ▶◀ [동네투어] 우리동네 가볼만 한 곳 -충무공동면-
- ▶◀ [JOB을 잡아라] 나나애견 권모나 애견마용사를 만나다
-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솔이'를 검색해주세요
- ▶◀ [필통술] 청소년 익명게시판 사연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4학년 김보민
- ▶◀ [기고글] 학교, 가오를 강요받는 사회
- ▶◀ [직설인터뷰] 자퇴생 청소년운동 활동가 박태영
- ▶◀ [취재수첩] 교과교실제, 학생들 쉬는 시간 뺏는 것이 목적인가?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쿵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확장이전

W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 하얀피부과
- 하얀성형외과
- 하얀소아청소년과
-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이달의 인물]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필통은 진주 청소년들과 함께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학생기자단은 (사)청소년문화공공체 필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소년들의 매체라 할 수 있는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자활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인 '필통 팟캐스트'도 직접 제작 방송하며 교육청등과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 멘토스쿨'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관련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필통기자는 진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다. 향후 중학생기자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방학때면 공식적인 학생기자모집을 진행하고 1차 서류전형, 2

차 개별면접을 거쳐 10~12명 정도의 신입기자를 선발한다. 신입기자들과 활동중인가자들은 '기자학교' '기자단 수련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매년 25~30명의 학생기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물론 자퇴등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필통기자단의 문은 열려 있다.

필통학생기자단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겨울방학때면 '기자단 수련회'에서 학생기자단을 이끌어 갈 기자대표와 부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는 신입기자, 현역기자뿐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한 필통 출신의 선배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고 후보들의 각오와 다짐을 듣고 한 해 필통을 이끌어 갈 자신들의 리더를 뽑게 된다.



〈2018년 필통의 학생기자 대표와 부대표를 맡게된 임수중(위쪽), 김정빈(아래)기자〉



Q. 간단히 소개 먼저 해 주세요?

수중) 진주고등학교 2학년 필통 학생대표를 맡게 된 임수중이라고 합니다.
정빈) 필통 부대표를 맡게 된 저도 진고 2학년 김정빈입니다.

Q. 필통에 지원하게 되었던 계기

정빈) 꿈이 방송쪽이고 흥미로워 보여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기자단.. 뭔가 멋지더라고요. 지원 마감 하루 전에 모집공고를 봐서 급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중) 원래 꿈이 기자여서 그년부터 다른 단체에서도 기자활동을 했어요. 필통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진주에 있으니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저에게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하던 활동들을 모두 그만두고 필통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Q. 필통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점?

수중) 필통엔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활동합니다. 생각도 성격도 다르죠. 그런 친구들이 함께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고 일하면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죠. 필통은 신문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 같은 느낌? 저에겐 그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정빈) 지금껏 한 번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어울린 적이 없는데 필통은 그 자체가 특별했어요. MT라든가 소풍처럼 학교생활외에 함께 모여 놀러가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인간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Q. 기자대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수중) 처음엔 도전해보아지 했지만 학년이 올라갈 때쯤 되니까 학업쪽으로 시간을 쏟아야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었죠. 그런데 앞서 대표를 하던 선배 누나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만 구분 잘하면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을거란 조언을 듣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Q. 자신의 의지보다 다른 기자들의 추천으로 부대표가 되었다는데?

정빈) 일단... 많이 당황했어요. 좋았다기 보단 두려움과 걱정이 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걱정이 됐죠. 진짜 될 줄은 몰랐거든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실 제 솔직한 마음에는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에이 내가 될 부대표야...'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좀 자신있게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요. 추천해주고 지지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하죠.

Q. 대표, 부대표가 되고 나서의 달라진 점?

정빈) 필통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 자신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되네요. 일단 저 스스로의 나쁜 습관을 없애는 노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중) 대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문 퀄리티는 물론 필통 전체의 분위기와 다른 기자들의 상황, 입장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 역할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팀을 이끄는 지위에 있다 보니 책임감도 더 늘고 필통을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이 생겨 기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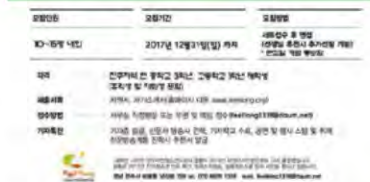
Q. 각오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수중) 좀 더 나은 신문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테니 다들 저희 필통이쁘게 지켜봐 주세요! 필통에 대해 궁금하거나 건의사항 있으시다면 스스로없이 저 임수중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필통 모집할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ㅎㅎ
정빈) 앞으로 작은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넘치는 기자, 그리고 부대표가 되려 합니다. 필통은 우리 진주 청소년들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필통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컨셉 최대한 건방진 품을 잡아 달라는 주문에 응하는 필통기자단 대표와 부대표의 클래스〉

사진으로 보는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은 매년 겨울 방학때 기자단 정규모집을, 여름방학때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수중 필통기자대표의 개별 면접 당시 모습〉



〈필통기자가 되면 필통의 전용 기자수첩을 지급 받습니다〉



〈겨울과 여름방학이면 필통기자단은 1박2일 기자단 수련회를 떠납니다〉



〈필통기자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필통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 직접 스토리보드 만들고 녹음합니다〉



〈2018년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 선거 당시 임수중, 김정빈 기자〉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취재하려면 취재길에 오른 필통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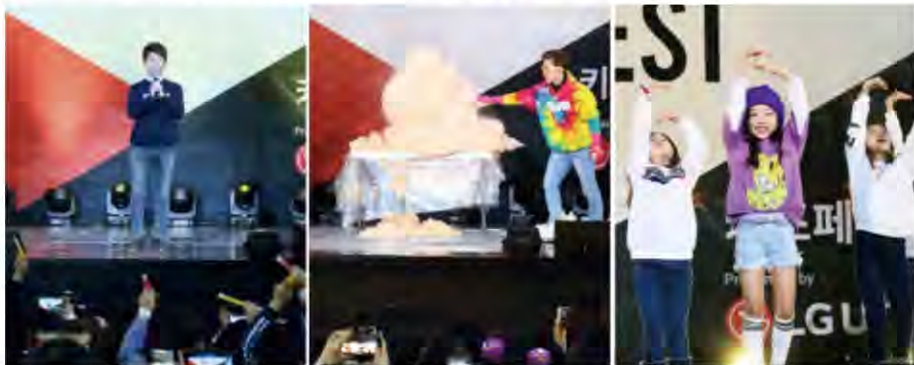
〈매년 한해를 정리하는 필통기자단 시상식&송년회가 열립니다〉



〈기자들은 매주 편집회의, 스크랩발표, 3분스피치, 25분 강의, 토론, 기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시장, 유튜브 영향력 TV 압도

와~ ‘도티’ 게임 강연 떴다... ‘어썸하은’ 댄스는 즐거워...



지난 2월24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 ‘유튜브 팬페스트-키즈 페스티벌’ 전시회 개막 1시간을 앞둔 시각인데도 이미 출

입구 앞에는 수백m의 대기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웬만한 아이돌 콘서트장 못잖은 열기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부터 들

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바로 ‘도티와 잠뜰’ ‘유라’ ‘허팝’ 등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동영상으로 리뷰, 개인 방송 등을 올리는 사람)와 만나는 자리였다. 유명한 스타 연예인은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교복을 입은 중·고생까지 대기줄의 연령대도 다양했다.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시장에서 유튜브 영향력이 TV를 압도하고 있다. 영상미디어라면 TV를 으뜸으로 치던 이전 세대는 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 흐름이다. 유튜브를 통한 1인미디어가 가능해지면서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어린이 희망직업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부

상하는 등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추세다.

유튜브에서 어린이 방송은 게임·예능·미용과 함께 가장 사용자가 많은 장르로 꼽힌다. 어린이 콘텐츠는 세계에서 매일 5억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고, 100만개 이상 학습 비디오가 매일 올라온다. 국내도 키즈 카테고리리는 2016년 한 해 시청시간이 전년도 대비 95% 증가할 정도로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은 정보검색을 네이버 같은 포털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터넷(IP)TV가 발달하면서 집에서 TV만화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청소년 전과자 양산 막는다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의 양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무기한 시행된다. 또한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도 각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

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저작권 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1년 단위로 연장해가며 시행돼 왔는데 이번



100여개 시민단체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요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 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0여개 단체들이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원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동참한 것은 혐오와 차별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마감된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는 한달 동안 21만 3219명이 서명해 청와대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또 이들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 페미니즘 교육 관련 정책도 제안했다.

英 정부 청소년 SNS 사용시간 제한 한국은?

영국 정부가 13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정부는 우선 13세 이상만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 트위터 등은 13세 이상에게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년월일 위조가 쉬워 해당 정책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도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경우 출생연도를 속여 가입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114명 목숨 끊어 2년 연속 증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2년 연속 1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3월에 1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은 114명이었다. 감소하던 학생 자살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학생 자살은 2013년 123명에서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108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고등학생이 76명이었고, 중학생이 33명이었다. 초등학생도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등학생은 2016년과 비슷했지만 중학생은 8명이나 늘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숫자다. 남학생이 64명으로 여

학생(50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추정)은 가정불화(194명·34.9%)와 비관·우울(102명·18.3%) 성적비관(67명·12.1%)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관이나 우울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전년에 비해 42.1%나 증가했다. 자살 원인은 학부모와 학교가 추정한 것이다. 학생이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데 교육당국의 고민이 있다.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들, 연평균 1600여건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초·중·고교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각종 통계가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학교폭력심의회(학폭위)에 넘겨진 학교 성폭력 사건은 4년새 171.9%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으로 4년 동안 171.9% 늘었다. 한해 평균 1634건이 발생했고 2241명이 피해를 당했다. 학폭위는 학생 간 폭력뿐 아니라 교원이 가해자일 때와 같이 피해자가 학생인 모든 폭력사건을 다룬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참정권으로 해결해야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상벌점제...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밤방,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펼쳐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년 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 다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그의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지금의 청소년문제가 적어도 그대로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

전국 최초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착공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이 본격화됐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5일 진주 옛 문산중 학교 터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하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올해 11월 준공한 뒤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원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재난과 일상 사고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2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안전분야별, 대상 학생별



수준에 맞는 7개의 체험프로그램과 24개의 콘텐츠를 운영한다. 개원하면 연간 12만 명의 학생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진주에 청소년문화공간 '해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예술체험공간이 진주에서 문을 연다. 경남도교육청은 (구)진양고등학교자리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3월 29일 개관을 목표로 3층 40실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에는 학생 단체 체험, 평일 저녁과 토요일, 방학에는 예술동아리 시설 대여, 개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심화 체험을 운영한다. 또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전시·공연을 수시로 연다는 계획이다.

'해봄'은 예술체험 30.5실, 전시 3실, 공연 3.5실, 관리·휴게실 3실로 구성되며 미술, 음악, 무용·연극, 전시·공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상시와 심화, 수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평일 낮

경남 작년 초·중·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2만원

지난해 경남지역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원으로 지난 2016년 20만9000원보다 1만 1000원(5.3%) 증가했다. 또 사교육비 참여율도 69.6%로 전년도 65.2%보다 4.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48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3월15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9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1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76.7%, 세종 74.0%, 대구 73.6%, 경기 73.2%, 부산 72.6% 순으로 높았고, 전남이 56.2%로 가장 낮았다.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223억원으로 2016년 18조606억원보다 5617억원(3.1%) 증가했다.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으로 전면 전환



진경남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고질적인 비리를 없애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엘리트 위주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2월 26일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먼저 엘리트 위주로 운영해온 도내 모든 초등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일부 엘리트 선수 위주가 아닌 원하는 학생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학교도 단계적으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2021년부터 전면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야구, 축구 2개 종목을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시범으로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18%뿐



경남지역 학교 가운데 화재 발생 때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체 학교의 18%에 불과해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또 밀양이나 제천화재에서 드러났듯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학교도 절반에 가까운 44.1%에 달했다. 경

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95개유·초·중·고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79개교였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낮은 것은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이 매일 활동하는 학교시설에도 법 규정을 일반 건물과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교사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에 4층 이상 건물이 있는 학교도 484개교나 되지만 법 개정 이후 건물에만 적용하고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실제 설치된 곳은 179개교에 그치고 있다.

진주아카데미 토크콘서트 '열광 시즌9'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 진주아카데미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열광 시즌9'가 3월18일 오후 2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60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아나운서 장성규의 진행과 미니강연을 시작으로 개그맨 허경환이 '사랑과 용기를

경남 첫 국제중학교 선인국제중 개교

진주 선인국제중학교가 지난 2월24일 MBC컨벤션진주에서 개교·입학식을 열었다. 진주 선인국제중은 도내에서 남해 상주 중학교에 이은 두 번째 특성화중학교로 지난해 9월 학교법인 기파교육문화재단이 도교육청에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얼마 후 인가를 받았다. 신입생은 국제반 2학급에 30명이다.



선인국제중은 타 국제중학교에 비해 입학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비도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으로는 영어, 중국어, 일어, 국제이해 1·2 등으로 편성됐으며 영어캠프, 국제이슈토론, 해외교환수업, 국제제도의재판 등 특색 있게 구성됐다고 선

인국제중은 강조했다. 선인국제중은 진주시 대곡면 옛 대곡초등학교 월암분교 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원래 지난해 초 개교 예정이었지만, 공사 미비 등 이유로 개교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제3회 락콘밴드페스티벌 열려

제3회 락콘밴드페스티벌이 지난 2월12일 오후 7시 현장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15세에서 22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9개의 유명 곡을 편곡해 직접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연 참가자는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출신으로 타지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 등 약 20여 명이다. 락콘밴드페스티벌은 2016년 2월 당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던 정희진 씨(20)의 주도로 시작됐다. 정 씨는 당시 이 같은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에 "문화예술행사가 적은 진주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익성을 띤 행사를 만들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며 "음악하는 친구들을 '땀파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먹고 사는 아바타'라는 주제로 도전과 열정을 담은 강연을 진행하였고 감성그룹 하운드투스의 축하공연으로 희망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진주아카데미)는 역경을 극복한 유명인들의 스토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신감과 학습동기를 심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열광'을 개최하고 있다.

진주 진양고 이색 졸업식 '눈길'



진주 진양고등학교(교장 강태석)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30분 교내 강당(달음마루)에서 학교 이설 이후 첫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은 학생·학부모들을 비롯해 동문들,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합창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학사 보고, 졸업장 수여, 상장 및 장학증서 수여, 졸업생 인사, 내빈 축사, 타임캡슐 전달, 학교장 회고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1·2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댄스, 합창, 현악5중주 공연 등 졸업 축하공연을 비롯해 졸업생들의 3년간 학교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 시청으로 준비됐다.

특히 이번 졸업식은 20년 후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과 졸업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넣어 진양고 1층에 마련된 학교역사관에 보관하는 행사도 진행되어 의미 있고 특색 있게 마련됐다.

진주기계공고 총동창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기백) 총동창회가 후배들을 위해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3월7일 진주기계공고에 따르면 총동창회는 지난 2월 9일과 3월 2일에 열린 졸업식과 입학식에 참석해 후배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진주기계공고 총동창회 장학회(회장 최인봉)에서 올해 입학생 9명에게 450만 원과 2017학년도 졸업생 11명에게 7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하만진 동문(21회)이 입학생 4명에게 12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이정구 동문(13회, 정촌초교 교장)과 이영춘 전 총동창회장(15회)은 교훈(믿고 일하는 민주 생활인)이 적힌 1000만 원 상당의 교훈석을 기증했다.

진명여중, 우간다 신생아 모자 뜨개질로 만들었어요



여중생들이 아프리카 우간다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를 돕는 모자를 손뜨개질로 만들어 보냈다.

진주 진명여자중학교(교장 백명숙)는 2월8일 이 학교 1학년 자율동아리 '꿈뜨고 손뜨개반' 학생들이 뜨개질로 신생아용 모자를 만들어 우간다로 보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집에서 뜨개질을 해서 모자를 만들었다. 우간다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를 돕는 모자 뜨기를 통해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활동과 연계해 손뜨개를 처음 배웠다. 이렇다 보니 조금 만들었다가 다시 풀고 만들기를 반복해 모자 가장자리에는 손때가 묻을 정도였다. 학생들은 "서툰 솜씨로 실을 얼마나 많이 풀고 감았는지 모르겠다"며 "완성된 모자의 가장자리에 손때가 묻은 것도 많고, 손때 묻은 모자는 다시 깨끗하게 빨고 다려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모자 뜨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여러 명이 힘을 모아 담요를 완성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코를 빼먹고, 뽀뽀뽀뽀해 모양도 사각이 안 되지만 정성 들여 만들었다"며 "이 모자를 쓰는 아이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원한다"고 했다.

진주동중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4강'



진주동중학교 축구부가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4강에 드는 성과를 거뒀다. 진주동중은 3월7일 경북 영덕군 창포해맞이구장에서 열린 '제54회 춘계 한국중등(U-15) 축구연맹전' 준결승에서 서울 문래중을 맞아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하며 공동 3위

에 이름을 올렸다. 진주동중 관계자는 "아이들이 전국대회 경험이 부족해 많이 긴장한 것 같다"며 "2016년 12월 창단한 축구부가 창단 1년 만에 이같은 성적을 낸 것만으로 대단한 일이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선명여고 전국남녀배구연맹전 '우승'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가 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선명여고는 3월20일 남해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8 춘계 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 여고부 결승에서 서울 중앙여고를 3-0으로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 대회에서 선명여고는 예선 경기를 포함해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배구명가를 입증했다. 선명여고는 조별예선 포함 4경기 연속 셋아웃 승리를 거둬 대회 목표로 내걸었던 '무실세트 우승'을 이뤘다.



김양수 선명여고 감독은 "우승을 차지해 정말 기쁘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열심히 훈련한 성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행복

하다. 앞으로 더욱 훈련에 매진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경해여중 진주평거복지관에 성금 전달

경해여자중학교(교장 윤치효) 전교학생회는 지난 2월21일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전교학생회 주관 자선행사 기금 및 학교 축제 수익금 185만330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평거복지관 내 다양한 복지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공군교육사, 항공과학고 건전음주교육 진행

공군 교육사령부는 지난 2월20일 항공과학고등학교 3학년 145명을 대상으로 창원에 위치한 주류 및 음주 관련 기업인 ㈜무학 본사를 방문해 '건전음주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과 공군 부사관 임관을 앞둔 항공과학고 3학년 학생들이 주류 제조시설과 박물관을 견학하며 국내·외 음주문화를 이해하고 음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음주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과도한 음주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시켜 대인 마찰·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 등 용납될 수 없는 각종 범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계획됐다. 교육은 ㈜무학의 국내 최고 수준의 주류 생산라인과 세계주류 박물관인 '굿데이 뮤지엄' 견학, 전문강사의 음주교육 특강으로 구성됐다.

대곡중 좋은세상 대곡면협의회에 성금

진주시 대곡중학교(교장 윤삼열)는 설 명절을 맞아 2월7일 좋은세상대곡면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대곡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제17회 큰굴한마당축제 기간 동안 아나바다 장터 및 특수학습 학생들이 쿠키를 직접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성금이라 더 의미가 있다.

경남체고 펜싱부 회장배 단체전 우승

경남체육고등학교 남자 펜싱부가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 펜싱선수권대회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진유담·안태영·서민준·심준호로 구성된 경남체고 남자 펜싱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

지 열린 이번 대회 남자 고등부 에페 단체전 8강에서 서울중경고를 45-29, 준결승에서 서울체고를 45-38로 꺾고 결승에 진출, 울산고를 45-29로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중 안태영은 에페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경진고등학교 3명 삼성 KT 합격



진주시 경진고등학교는 지난해 진주시 지역 대기업 최다합격자를 배출했다. 경진고 학생 3명은 KT 2명, 삼성 1명이 대기업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 됐다. KT는 이승진, 정은정 학생이 합격했고 삼성전자는

김승희 학생이 합격했다. 이번 대기업 합격자들로 인해 학교는 명성이 높아졌다. 경진고등학교 페이스 북 페이지에는 합격자 인터뷰영상이 올라와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의 축하와 응원이 가득하다.

앙골라 출신 풍기 사뮤엘 경남FC 진주고 입학

"다른 선수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3월 경남FC 유스팀인 진주고 축구부에 입학한 풍기 사뮤엘(17·사진)은 앙골라 국적이다. 11년 전인 2007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와서는 놀러 살고 있다. 어떻게, 왜 한국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6살 때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만 18세가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그때 가서 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뮤엘은 경기도 청담중에서 축구

를 시작해 중앙수비수로 활약했다. 현재 181cm에 75kg으로 도래 중에서는 체격이 좋다. 물모넬로 레알마드리드의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를 꼽으며 닮고 싶다고 한다.

사대부고 성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018년 3월8일(목) 경상대학교 사대부고는 교내 인성안전부 주관으로 하교시간을 이용해 중앙정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하여 '2018학년도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네투어] 우리동네 가볼만 한 곳

조금은 색다른 신사가지 충무공동 어딜 가볼까?

대한민국 남쪽의 작은 도시, 진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아마도 진주의 동네 곳곳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은 집과 학교, 학원외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필통에서는 ‘동네투어’를 통해 각 동네에 청소년들이 가볼만 한 곳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이번 호에서는 진주의 현재 진행형 도시, 혁신도시가 위치한 충무공동을 둘러보았다. ‘충무공동에는 놀러갈 곳이 없다.’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등 늘 베일에 싸인 곳으로 표현된 충무공동,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충무공동의 청소년들만의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보았다.

AM 11:00 이성자 미술관 앞

충무공동은 신도시라 여전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동네투어를 위해 기자들은 오전 11시 이성자 미술관에 모이기로 약속했다. 신안동을 출발한 A기자는 280번을 타고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 15분을 걸어야 했고 50분이 걸렸다. 다른 3명의 기자들도 각각 300, 301, 150번 버스를 탔지만 역시 버스에서 내려 10분에서 15분은 걸어야 했다.

AM 11:00~12:00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관람시간 : 3~10월 9시~18시, 11~2월 10~17시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버스편 : 200, 380, 381번

혁신도시 영천강변에 위치한(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14)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은故 이성자 화백이 진주시에 기증한 37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LH 본사의 지원으로 세워졌으며, 1층은 이 화백의 습작들이, 2층에는 ‘대척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자들의 느낌적인 느낌?]

규모도 작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방문했다. 이성자 화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터라 그냥 둘러보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해설자 분께서 이성자 화백의 성장 배경과 작품에 담긴 뜻들을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주셨다. 덕분에 얼핏 어렵게 느껴지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었던 그림의 세부적인 요소까지 배울 수 있었다. 마치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배우고 감상하는 느낌. 무엇보다 사진 찍기 좋은 전시관이고 사람이 물리는 곳이 아니라서 편하게 관람하고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탄생 백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면 꼭 다시 방문할 생각이다.



PM 12:30~1:30

LH홍보관/토지주택박물관

관람시간 : 매주 월요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국경일, 10월 1일, 5월 1일
관람료 : 무료
버스편 : 150, 200, 290, 301, 380, 381번

본사의 홍보관은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1층은 LH 발자취, 영상 체험관, 라이브러리, 카페테리아 등이 있고 2층은 다목적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기자들의 느낌적인 느낌?]

익숙하게만 느껴졌던 진주가 이번 충무공동을 여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다가왔다. 특히나 LH 본사를 간다는 것에 기대가 많았는데, 본사에 위치한 박물관답게 잘 짜여진 구성이 지루하지 않은 경험을 만들어 주었다. 총 3관으로 된 전시관은 각 시대에 맞춰진 건축 모형이 실제 크기로 지어져 있고, 건축에 쓰이는 실제 재료, 토지와 관련된 문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담고 있어 그 동안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대패질 체험, 키네틱 샌드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어 흔치 않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분위기가 개방적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지만, 박물관을 통해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토지와 건축의 변화를 한 눈에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라인 경기장 & 엑스게임장

진주종합경기장 생활체육 공원에는 도내 최초의 공인 1층 인라인경기장과 엑스게임장, 암벽등반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에티 클라이밍짐 또한 진주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해 있다.

▶버스편-150, 280, 281, 282, 290, 292, 293, 300, 301번



롯데시네마& 롯데몰 옥상정원

아울렛과 쇼핑몰을 합쳐 7,050평과 롯데마트(2,200평), 주차 대수는 1,300대 규모를 자랑한다. 롯데시네마는 7

진주성 왕발통라이더

전동킥보드, 왕발통라이더 시간당 1만5천원, 한 시간 추가 시 할인이 된다고 한다. 라이더나 왕발통으로 10킬로 이상의잘 조성된 충무공동 트레킹 길을 즐긴다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요즘 같은 봄날 밤에 가족들과 라이더를 즐기는 것도 특별한 재미다.

▶ 버스편 - 200, 380, 381번

진주시 장난감은행

2015년 3월 혁신도시 내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이 오픈했다. 충무공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은 300여 점의 장난감과 18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장난감 1개, 도서5권을 2주간 대여 가능하며 회원은 진주시민이어야 가능하다. 연회비는 2만원. 회원가입하려면 등본과 신분증 필요하다.

▶ 버스편 - 150, 290, 300번



[특집] #Me Too 운동, 청소년도 With You

미투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지나야 할 시간!

me too 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서지은 검사의 용기에서부터 문화계로 급기야 정치계로 번져 나가고 이제 초중고의 학교 교실로까지 휘몰아칠 기세다. 여기저기서 붓물처럼 '미투'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인한 우려와 혼란을 걱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투 당사자들이 2차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왜곡된 정보들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반대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미투' 운동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에선 미투 운동을 남성대 여성의 갈등으로 몰아 그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미투는 단순히 성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나도 당했다'
그 '나'는 결국 우리 모두 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투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성차별 남성중심의 사회였고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남성이 독점하다시피 했기에 성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일 수밖에 없을 뿐이다. 남성도 얼마든지 피해자일 수 있다.

남성중심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약자인 피해자 여성이 '미투'를 외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투' 이전 만큼이나 이후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고통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고 항상 그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이유중 하나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투' 운동이 중단되거나 그 본질이 흐트러 질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미투운동은 역사적인 흐름이다. 큰 물이지면 작은 소용돌이도 있고 예기치 않은 피해도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있어서는 안 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고 '미투'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한 시대를 넘고 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돈과 지위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시대,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존엄 따윈 무시해도 되는 시대, 우리는 이제사 그런 시대의 마지막에 도달했는지 모른다.

가정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행해졌던 기득권과 폭력,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했다. 학교에선 교사라는 이유, 힘이 세다는 이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무시됨을 당연시했다. 직장에 가면 회사의 사주와 상사들이 그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함에 있어 갑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이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동등한 사람임을 잊는다. 더구나 여성이라면 더 그래요 되는 존재였다.



미투는 단순히 성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나도 당했다' 그 '나'는 결국 우리 모두 일수 있기 때문이다. 나 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이 '나'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With you'를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이 힘과 돈, 권력으로 훼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스스로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시대가 그냥 던져질 리도 없다. 'with you'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용기 있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함께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미투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지나쳐야 할 힘겨운 시간을 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

#Me Too #With You 를 외치다



J고 2학년 Y학생

최근에 새로 오신 남선생님이 수업 들어 올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은데다가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자기는 못생긴 20대 여자들을 보면 구토가 나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여자같이 생기지도 않은 여학생이랑 대화를 한 이야기라며 떠들면서 웃음거리로 소비한다. 그 선생님이 말하는 여자 다음에 대해 수 없이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선생님은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별적이고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할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전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J고 2학년 K학생

중3때 아빠랑 그 친구분과 셋이서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대충대충 먹었다. 아빠 친구분은 그런 날 보더니 "남자는 뭐든지 다 잘 먹어야 한다. 여자처럼 까작까작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음식 먹는 것으로 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S고 2학년 K학생

중학 시절 교내규칙으로 레깅스 스타킹을 신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워낙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 이에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으며 다

수의 학생들이 또한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 학생이 선생님께 왜 레깅스 스타킹을 신지 못하냐며 질문을 하자 선생님은 여학생이 발목을 드러내는 것이 자칫 야해 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규정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때의 일을 돌이켜 보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싶다.

J고 2학년 L학생

초여름, 체육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시간이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은 더워서 반팔티 하나 걸친 여학생에게 웃이 그게 뭐냐면서 초여름이 그 정도면 더워지면 볼 만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반 애들은 경각심 없이 같이 웃었다. 그 후로도 그 선생님은 자주 수업 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던졌다. 아내와 딸이 있는 선생님이 쉽게 할 얘기들은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냥 들을 수 밖에 없었다.

D고 2학년 Y학생

중학교에 있는 탈의실이 여학생 전용만 있었다. 남학생들은 볼만이었다.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었고 행여나 여학생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조마조마 해야 했다. 몇 차례 남학생 탈의실을 만 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남자는 관찮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추후에 이른바 몸

빼치마가 제공되어 속옷은 보이지 않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지만 탈의실은 졸업할 때 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J고 1학년 J학생

중학교 때다. 한 학생이 한쪽 다리를 옆 의자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여자애 다리가 그게 뭐냐고, 다리가 왜 그렇게 굵냐고 그랬다. 또 난 여자반이었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께서는 여학생들의 가슴에 있는 이름표 명찰을 잡으면서 꼭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하는 학생의 입장은 전혀 상관없는 거다. 중학교때 한 선생님은 하복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의 등을 쓰담쓰담 거리면서 브라 후크 부분을 만졌다는 얘길 듣기도 했다.

J고 2학년 J학생

남여공학에 다니던 친한 동생 A가 학교 선배들과 막 16살이 됐을 때 강남에 놀러가서 생긴 일이다. 강남 시내에서 놀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문득 여자 선배들도 옆방에 들렀다 온다며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자신과 남자 선배 B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눈치를 보며 빠져나가려던 차에 B가 A에게 '야동을 같이 보자'고 하며 손목을 잡은 뒤 강제로 눕혔고, 쇄골 쪽이나 다른 살결을 혀로 핥는 등의 짓을 저질렀다. A는 놀랐고 뿌리치려 했지만 175센티가 넘는 선배를 이길 힘은 없었기에 적당히 피하고 맞춰주며 빠져나왔다고 한다.

정신없이 지하철역까지 뛰어간 A는 너무 무서워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일정이 있어 받지 못

했다. 나에게 전화를 걸며 혼자 집까지 울면서 돌아갔을 A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진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가 속상한 마음에 신고하라고 하자, A는 부모님이 이 일을 알게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며 거부했고, 결국 그 일은 해결되지 못했다. 그 후 A는 한동안 하루에 샤워를 5번씩 했고, 우울증 증세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도 그 날 이후 전화 알림을 늘 커두는 습관이 생겼고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과 그 상황을 상상하다 잠에 들지 못하곤 했다. 이후 고민 끝에 여고로 진학을 선택한 A는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그 날의 기억을 한 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을까 싶다.

K고 2학년 H학생

중학교 시절 내성발톱 치료를 한 다음날 봉대로 인해 양말과 신발이 들어가지 않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등교했다. 교문을 지나선도 선생님들이 계신 쪽을 지나가던 중 한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양말과 신발을 신고 오지 않았냐.' 나는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발가락을 보이면 안 된다.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선생님은 이걸 안 좋게 보신다. 아빠 양말이라도 신고 다녀라.' 였다.

K고 1학년 J학생

B선생 또한 G모 중학교의 선생이다. 기술·가정 과목을 담당하는 B선생은 수업시간에 종종 성차별적 발언을 하여 학생들이 당혹스러워 하거나 불편해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B선생은 '여자는 커서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 라던가 '여자

들은 바느질 같은 일을 기본으로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말을 했다. 물론 그러한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중이기도 하지만 학생과 선생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항의할 수도 없이 끝까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또한 B선생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도 종종 했다. 한 학생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자 '모으고 앉아라.' 라는 말 대신 '속옷 다 보인다. C선생이 보면 어찌려고 그래냐.' 라며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당사자와 다른 학생들도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다. B선생의 위험하고 불편한 발언은 계속됐다. 때는 여름, 한 학생이 너무 덥고 교복 셔츠도 불편해 안에 검정색 반팔을 입고 겉에 셔츠를 잠그지 않고 걸쳐 입은 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선생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야시시하게 입어서 C선생 유혹하려고 하는 거냐.' 더위 때문에 옷을 그렇게 입은 것이 도대체 왜 '야시시' 하다는 표현을 들어야 하고 선생을 유혹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 무슨 의미일까?



[19금 파헤치기] 청소년들을 위한 19금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성상식, 바로 잡습니다!



1. 산부인과 의사는 처녀인지 알 수 있다?

의사가 확대경을 통해 질은 10배 크기로 들여다봐도 성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수 없습니다. 모든 처녀막에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처녀성은 처녀막이 찢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녀성을 상실할 때까지 처녀막이 질을 완전히 덮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여성을 극히 드물고 이런 경우는 생리혈이 자궁에 고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포경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본래 남자 성기의 귀두는 포피라는 조직에 덮여있다. 이 상태를 포경이라고 한다. 이때 발기를 하면 포피가 뒤로 젖혀져 귀두가 드러나게 돼있다. 포경수술은 바로 이 상태를 유지시켜 포피를 뒤집는 성형술이다. 이에 전문의들은 귀두 노출로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키움으로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음경암, 여성의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감각에 있어 포피는 그의 분비물로서 귀두에 윤활제와 방어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포피가 깨끗이 유지되고 발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와 같은 질병은 충분히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경수술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사항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3. 음경이 휘어진다?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손으로 계속 자위를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음경이 휘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 번갈아가면서 자위를 해야 음경이 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웃픈 현실입니다. 절대 자위 때문에 음경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모양, 크기, 굴곡 등이 다르며 보는 각도에 따라 휘어져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자위 때문에 휘어졌다고 믿으면 안되겠죠? 음경이 휘어졌다면 발기할 때 통증이 발생한답니다. 그럴 땐 바로 비뇨기과에 가서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아요.

4. 사각팬티보다 삼각팬티가 정력에 더 좋다?

아니다. 오히려 꽉 끼는 삼각팬티가 더 안 좋다. 꽉 조이는 속옷을 하루 종일 착용할 경우 혈액순환 저하, 음낭 부위 온도 증가 등으로 성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고환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장애를 일으킬수 있다. 꽉 끼는 속옷을 입을 경우 남성호르몬 분비량도 줄어 성욕부진, 발기부전 등을 일으킬수도 있다. 하기에 잠 잘 때만이라도 속옷을 벗거나 헐렁한 속옷을 입는것이 성기능 증강에 도움이 된다.

5.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가 된다?

조루란 자신의 의지대로 사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위 때문에 조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위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사정을 빨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성관계를 할 때에도 그 습관으로 인해 빨리 사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생리중의 섹스는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중 24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남성의 정액은 평균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5일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생리중의 섹스도 얼마든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리중에도 피임은 필수!!

8. 성기가 클수록 정력이 세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정력과 음경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옛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음경이 작은 사람의 정력이 더 센 경우가 많다. 정력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따른 것이기에 평소 심신을 꾸준히 단련하면 좋아지는 것이지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음경 왜소증》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 음경확대시술 등으로 자신감을 얻어 성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있다.

9. 3일에 1회 이상 남자자위 중지 않다?

1일 1회의 남자자위가 좋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상식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정자의 질의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죠. 반면 3일에 1회 이상 남자자위 중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남자자위 상식입니다. 3일이라는 기간이 나온 이유는 정자의 생성주기가 보통 3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를 무시한 남자자위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정자가 3일에 한 번 생성되더라도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액 자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남자자위가 신체에 있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잘 없죠. 다만 남자자위는 생각보다 체력소모가 큼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횟수의 자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올바른 남자자위 상식 중요한 부분입니다.

7. 정액이 없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자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정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사춘기가 되면 고환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산되면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평생 동안 매일 50만~100만 마리의 정자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이 없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 중 하나 입니다.

[필통 상식] 이젠 알자!

글을 쓰다가 맞춤법이 헛갈린다면?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가 있었다. 여러 항목 중 '가장 많이 헛갈리는 맞춤법?'이라는 물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꼽았다. '되'와 '돼'의 구분, 부사의 끝음절에서 '-이'와 '-히'의 구분이 뒤를 이었다.

헛갈리는 맞춤법 표현 알아보기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아래의 간단한 규칙들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를 참고하면 된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여러 개의 조사 붙여 길어지더라도 모두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꽃이 - 거기도 - 여기에서부터 - 작년에만
-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열 개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불이 꺼져 간다.(원칙) - 불이 꺼져간다.(허용)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홍길동 - 채영신 씨 - 최치원 선생 - 충무공 이순신 장군

〈'되'와 '돼'〉

'되-'는 '되다'의 어간이다. '되-' 뒤에 어미 '-어'가 붙

어 줄어든다면 '돼-'로 적는다. '되-' 뒤에 '-어', '-었-'과 어울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되-'로 적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을 참고하면 된다.

- 선생님, 저 집에 가도 되나요?
- 그렇게 하면 안 돼('되어'의 축약형).
- 저녁이 거의 완성됐(되었)으니 어서 집에 오렴.

〈'-이'와 '-히'〉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참고하면 된다.

- '이'로만 소리 나는 것 → '-이'로 적음.
- 깨끗이 - 반듯이 - 가까이 - 많이 - 우뚝이
- '히'로만 소리 나는 것 → '-히'로 적음.
- 극히 - 급히 - 딱히 - 엄격히 - 정확히
- '이'로도 소리 나고, '히'로도 소리 나는 것 → '-히'로 적음.
- 솔직히 - 가만히 - 간편히 - 각별히 - 소홀히

가장 많이 헛갈리는 맞춤법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헛갈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하는지 묻는 조사에서는 종합 정보 사이트(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국어사전을 이용해 확인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중이 사진을 펼쳐 찾는다', '맞춤법을 잘 알거나 알 법한 주위 사람에게 묻는다', '문서 편집기(워드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사용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찾는 일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온라인 가나다로 직접 물어볼 수 있다.

[필통편집국]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별 최고 디저트를 찾아라

아직도 디저트 먹으러 카페 가니! 더 싸고 맛있는 편의점 어때?

배고르면 밥을 먹어야하고, 밥을 먹으면 디저트를 먹어야 하루를 잘 산 느낌이다. 하지만 요즘 디저트들은 밥 값과 비슷해서 부담되고, 먹기도 꺼려진다. 특히나 음료와 디저트를 한 번에 맛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점을 주목하며 많은 편의점들이 디저트 상품을 만들고 있고, 몇몇 상품들은 이미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거라고 예상되는 편의점 디저트를 오늘! 편의점을 털어라에서 모두 털어보겠다! (맛 평가는 기자들의 주관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GS25



로얄 티라미수(★★★★☆)

3000원, 443kcal

우유, 초코, 커피 맛이 조화를 이룬다. 일반 카페에서 파는 티라미수와 식감과 맛이 매우 흡사하다. 느끼함 없이 텃맛이 깔끔해서 맨입에 먹어도 부담이 없고 아메리카노와 먹으면 더욱 잘 어울린다. 가격 대비 양도 많은 편이고, 스푼이 들어있어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달달한 맛을 싫어한다면 비추한다.

7-Eleven



듬뿍듬뿍 딸기샌드(★★★★☆)

2000원, 267kcal

딸기가 상큼하기 보다는 달아서 기존에 먹던 딸기 생크림 맛이 난다. 빵이 부드러움은 않아 양 조절에 실패하면 딱딱한 걸빵만 남을 수도 있다. 크림은 시중에 파는 생크림 케이크에 있는 것이며 생각보다는 양이 적다. 딸기와 빵, 크림의 조합이 적절하고 식사대용으로도 무난하다.

CU



크렌베리스콘(★★★★☆)

1000원, 222kcal

배가 부르 상태였는데도 부담 없이 먹었다. 무언가를 마셔야 할 딱딱함이 아닌 매력적인 퍽퍽함을 가지고 있다. 씹을수록 부드러운 빵과 달달한 크렌베리가 완벽 조화를 이룬다. 가격대비 최고의 편의점 디저트라고 생각한다. 일반 카페 스콘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모찌롤 케익(★★★★☆)

2500원, 337kcal

이름과는 다르게 그렇게 모찌한 느낌은 아니다. 생크림과 폭신폭신킨 카스테라가 합쳐져서 달달 촉촉하다. 우유 맛이 강한편이고, 촉촉한 식감 때문에 목이 막히지 않는다. 생크림은 살짝 인공적인 맛이 나지만 기존 빵들보다는 덜한 편이다. 치즈맛이 살짝나기 때문에 느끼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비추한다.



쿠키&치즈 아이스크림(★★☆☆☆)

2000원, 195kcal

치즈 크래커에 크림치즈를 더한 느낌이다. 생각만큼 느끼하거나 달지도 않다. 부드러운 치즈 맛을 살렸으며 치즈를 좋아하지 않아도 먹을 만하다.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듯하고 가성비를 따져보면 굳이 사먹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과자는 다이제보다 부드럽지만 퍽퍽하고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편이다.



초코크로와상(★★★★☆)

1200원, 359kcal

씨유 베이커리 상품으로 초코 크로와상을 이 가격에 맛볼 수 있구나 감탄했다. 사실 속까지 채워져 있는 빵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신기해하며 다 먹었다. 부드러운 빵의 식감과 맛은 빵집을 상대로도 불어볼만 하다. 하지만, 속에는 초코가 느끼하게 느껴져서 단독으로 먹기엔 부담이 있다.

Emart24



진한 초코케익(★★☆☆☆)

2500원, 265kcal

조각 케이크 마니아로서 실망이 컸다. 느끼한 초코크림과 푸석한 빵이 입안에서 걸돌았다. 초코 크림에서는 버터, 치즈 맛이 심하게 났고 계속 먹다가는 속을 버리겠다 싶어서 시식을 포기했다. 같이 먹은 친구는 내 돈주고 사먹기 아깝다, 한입까지는 먹을 만하다 같은 평가를 남겼다.



피코크 파베 초콜릿(★★★★☆)

2500원, 186kcal

개당 500원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특유의 달콤쌉싸름한 맛이 오래 기억에 남아 계속 먹고 싶게 만든다. 찐하고 꾸덕한 초코를 좋아한다면 추천한다. 커피와 먹으면 천상을 경험할 수 있다. 가루가 잘 날리고, 속에는 포크에 이미 가루가 묻어있어 깨끗하게 먹기는 포기해야 한다.

TIP. 음료

요즘 편의점은 자체 커피기계를 설치하여 카페와 같은 맛의 커피를 더 싸게 맛볼 수 있다.



편의점 레시피 인기 청소년 건강 우려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편의점 음식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편의점 레시피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솟는 인기와 달리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치찌개 컵라면에 각종 햄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부대찌개가 완성됩니다. 길게 늘어지는 치즈가 일품인 오지 치즈, 감자과자에 치즈를 올려 전자레인지로 돌려주면 바로 새로운 요리가 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편의점 레시피'입니다.

편의점 레시피는 편의점 음식만을 이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건데요. SNS에서도 다양한 조리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많

은데 이렇게 섞어 먹으면 간편하게도 먹을 수 있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그럴 때 편의점을 들러서 뭘 사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요즘은 편의점 레시피도 많이 나와서 더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입니다.

가격까지 저렴해 학생들은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 보니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을 찾게 되는 것 같고 신메뉴도 많고 또, 편의점에서만 파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편의점 음식들은 즉석 가공식품으로 건강에는 좋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인기 레시피 속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을 살펴봤습니다. A떡볶이는 1550mg, B소세지는 700mg, C라면은 830mg, D치즈는 60mg입니다. 이 식품들을 한 번에 요리해 먹을 경우, 한 끼만으로도 청소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 1500mg을 넘습니다.

편의점 식품의 대부분이 보면 육가공품이 많습니다. 육류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거기에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평균 2번,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은 편의점 음식을 먹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쉽고 편한 것만 찾기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틴틴이슈①]

게임중독은 질병일까? WHO 방침 찬반 가열

게임장애, 진단기준 놓고 갑론을박... '청소년 낙인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상생활보다 게임에 의존하는 것을 '게임장애'로 규정해 질병으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국내 게임업계가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관련 협회 8곳은 2월19일 '비과학적인 게임 질병화 시도에 반대하며, ICD-11 개정안 관련 내용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WHO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에 앞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개별코드로 넣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ICD-11 초안은 게임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만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등 3가지를 장애 진단기준으로 제시한다. WHO가 게임장애를 ICD에 포함하면 ICD를 기초로 만드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도 게임장애가 등재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 협회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약 20억명에 달한다"며 "이런 정의와 진단기준으로 20억명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상식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WHO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게임을 '질병화'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들 협회는 "WHO의 게임 질병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앞으로 타 국가 및 관련 산업계와 연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8명의 학자 그룹은 WHO의 이같은 방침이 과학적 뒷받침이 결여돼 있고 투명성이 없다며 반대 공개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미국게임산업협회인 ESA 역시 WHO의 발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전방위로 반격을 이어가면서 향후 어떠한 귀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번 WHO의 모호한 중독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략 15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단지 게임을 조금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독자로 분류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10조 원을 넘어섰고 대표적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하루빨리 내려져야 할 시점이다.

[필통편집국]



[틴틴이슈②]

청소년 전용 클럽... 새로운 문화 vs 탈선조장

성인 클럽과 비슷하지만 술·담배는 금지, 주말이면 1000명씩 입장

최근 서울 홍대에 청소년 클럽이 오픈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청소년 클럽은 2005년생 이상 1999년 이하(만 12세~만 18세)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성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학생증과 청소년증, 여권 등 국가 신분증 제시 후 입장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후 5시~10시까지다.

다만, 여느 일반 클럽과는 달리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배, 라이터, 주류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시 출입할 수 없다. 클럽 안에서도 술 대신 콜라 등 탄산음료를 판매한다. 한 정보지에 따르면 청소년 클럽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행여나 탈선의 장소로 전락해버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클럽 관련 SNS에는 노출 심한 옷을 입은 한 여학생이 문란한 사진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린 바 있다. 클럽 주변에도 흡연하거나 문신한 청소년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청소년 클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이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클럽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홍대 청소년 클럽을 없애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올라온 청원에는 공감 댓글이 다수 달려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 청소년 클럽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지, 부적절한 시설로 남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10대 들의 스트레스 분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선의로 계획 한 일이라면 성인클럽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건전한 놀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돈 벌이를 목적으로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찬성	반대
청소년들에게도 최신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 클럽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단연 시끄러운 음악과 춤, 그리고 DJ다. 어두운 조명 아래 화려한 불빛들이 더해지면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너무 힘들다. 때 마다 봐야하는 시험에 끝도 없는 수행평가가 매 학기를 기다린다. 방학은 짧디 짧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 클럽에 다녀온 청소년들의 후기다. "술을 팔지 않아도 애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선을 넘을 수 있다." "클럽에서 만나 술은 밖에서 마시면 된다." 술과 담배가 금지된 클럽이기 때문에 해당 클럽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탈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될 지 모른다는 염려를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합법적인 청소년 문화의 장이 필요하다. 청소년 일탈은 법이나 주변 어른들이 막을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클럽이 생기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클럽에서는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주로 폭행과 성추행이다. 미숙한 10대들을 한 장소에 모아두는 것은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행동을 제제하는 가드(Guard)가 있다. 청소년 클럽에서는 가드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음주와 흡연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청소년 클럽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홍보한다. 클럽문화에는 음악, 춤과 함께 이성도 빠질 수 없다. 청소년 또한 이를 피해 갈 수는 없는 것 같다. 10대들을 클럽 가드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필통편집국]

[맷캉년맷반] 보고싶다 친구아~

경해여고 2학년 11반 친구들아~ 고3 생활 멋지게 보내고 다시 만나자

겨드랑이에서 자스민 향내가 풍기고 입에서 로즈마리 향내가 풍긴다는 여고에 대한 환상을 충족해줄 반. 성적은 이과 꼴등이지만, 인성은 진주 일등 2학년 11반 ^0^*



우리 선생님 이지훈
라코스테를 사랑하는 SWEET GUY.
베이비 페이스+근육맨ㅇㅅㅇ.. 생
명을 사랑하는 (구)파브르 (현)경해
여고 THOMAS+알렉스+서강준. 넘
완벽하지만 가끔 미끄러져 팔이 부
러지는 감쪽 반전 매력 뽐뽐!

나의 이상형& 하고싶은 말

번호	이름 (별명)	하고 싶은 말	이상형	좋아하는 것
1	강냉이	팔볼 최고	황민현	날카로운 찌뽕
2	권란희	서누 사랑해	두주니	가만히 있기
3	권현정	권순영은 내 먼 친척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가을, 영화, 음악
4	김민영	대학생 되고 싶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	휴먼시
5	김민채	수능 끝나면 콘서트 갈거야 —	김석진	♡BTS♡
6	김주원	댕강들과 임습깡치	권지용	드라마 명불허전, 게임
7	민정원	동료발랄하게X 행복하게♥	목소리 좋은 귀염상 남자	노래방
8	박민경	장난하나	키 크고 목소리 좋은 앞머리 내린게 찰떡인 남자	박우진
9	박교틸	출동 원더뽕 YEAH~	김경호	주말 아침 시리얼 먹으며 한국 사 정독하기
10	박지윤	나도 뽕뽕이	예쁜 남자	꽃이야
11	박지현	빈아 사랑해♡	빈♡	빈♡
12	박진영	오슬레미오 데끼라페 카페라페 녹차 라페	유머러스, 흰 피부, 잘 맞춰주는 사람	비투비♡, 서든넉네임:백인크로 웁
13	백지윤	*안녕 친구들*	매너있고 재미있는 인간	클래식 들으며 독서.
14	서라영	호랑이 발바닥 만져보고 싶다	키 크고 강아지상, 여우상	개과 고양이과 동물, 파충류
15	일미너	올해안에 연애하고 싶다	키 크고 얇은 비스 라비 같은 남자	VIXX
16	신승아	우리 반 발을 최고 1등!	수학 천재	마피아 게임
17	양양	여러분 모두 심심하실 땐 뉴이스트W where you at 들어주세요. 최고됩니다...	청소 잘하는 미녀♡	3701
18	이서경	바다 가고 싶다	박찬열, 귀여운 사람♥	고양이
19	이지훈	착한 모범생 우리 선우 파이팅^^*	안준영의 뚝배기를 닮은 남자	나
20	이예린	떡볶이먹고싶당ㅠ	나를 편하게 하는 남자	노래부르기!
21	이초현	초초♡동동	임영민	이서경
22	장한이	불로장생	목에 리본 단 남자	아이스크림 먹고 어드벤처 타임 시청
23	정서영	강다니엘♡	강다니엘	강다니엘
24	정수현	워너원 Beautiful 많이 들어줘요 ㅠ— ㅠ	무쌍이고 키 큰 사람♥	수제비
25	조희연	BTS♥	전정국	잠
26	최성민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람. 이왕 잘생기길.	관심과 사랑
27	최수정	안녕!	착한 사람	맛있는 거, 도로시♡
28	홍민희	미니미니칩칩	싸가지 없게 생긴 착한 사람	교정기 고무줄
29	황두영	이제.. 공부 좀.. 해볼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개그코드 잘 맞는 사람, 기억 잃을 배짱 있는 사람	망상

이쁘다~이쁘다~이쁘다니까!



양서현:뚝 부러지는 부 반장 가끔 큰 목소리로 우리 달팽이관을 뚝 부러뜨리는 게 단점. 그녀는 매력만점 한국사수 니@>@! 한의사가 꿈 임. 손 발 찬 태양인은 서현이에게..

신승아:허리가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머릿결의 소유자임. 발음은 좋지 않으나 말을 잘함. 그녀의 발표를 들으면 모두가 홀리게 된다고 한다... 교정기를 끼고 있는 나 음식 안 가림.

이서경:참치 모찌 낭방이 집사. 발표할 때 장사꾼 기질을 보임. 나중에 다단계 회사 취직하면 입사 한 달 만에 판매왕 등극할 실력임. 한국사 시간에 서경 천도 들을 때마다 웃음 유발



홍민희:감정기록이 심한 거의 홍진경 (출 실력도 홍진경). 그 누구보다도 수학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임 안 즐기면 배척함. 컴온걸 컴온보이~ 케치크레용

이예린:서울말 쓰는 경기도인. 작고 피꼬리같은 목소리로 귀를 녹이지만 조곤조곤 디스 잘함. 수업진도를 몰으면 대답을 바로 하는 모습을 보아 수업 진도 적는 수천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음... 철청 철커녕

강민주:우리반 유일무이 HIP 부원. 춤 잘 춤 >>> 수업시간에 으르렁 쳤음 (흑역사)<<< 블랙비를 위해 주시 가게를 인수했다는 소문이 진주시내 자자. 축제 때 많은 시청바람. 성격이 미륵보살 직계 6 대손



이초현:영만튀를 자주 하고 잘함. 하지만 본인 엉덩이는 기피...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넘나 따뜻하다구.. *^^* 스노우로 찍어도 실물이 나온 2등 셀고

민정원:핸드폰 담뱃자. 셀카 잘 찍음. 유쾌한 성격을 가짐. 민경훈 조카라는 소문이 돌기도 .. 노래방 수나라 버즈 노래 잘 부르는 남자 환영 (삼촌 닮은 사람). 오진 기억이 지린 사람이 되기를

최수정:매점에 최수정 뒀다 하면 그날 소세지는 매진. 우리 학교 환경부 차장으로 순동한 외모와 달리 쓰레기를 보면 분노에 휩싸임. 깔끔한 결벽증 남자 환영 ((EX)서장훈(본인은 아니라고 주장))



백지윤:우리반 최장신 미녀(라고 적어달랬음). 화장 후에는 직장인. 속 눈썹 뷰러 각이 거의 비뿔산 오를 때의 각이라고 볼 수 있음. 반박 안 받음. 누구보다 늦게 학교에 오고 누구보다 빨리 감. 굉장히 부지런

박지현:비가 올 때 주둥이 때리고 싶은 얼굴 타입 1. 브라운수니. 트름 오케스트라 단장+무원 다 맡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마 8.5센치. 새로 열리는 올림피아 장소가 열이 이마라는 설이... 머리도 작고 ㄹㅇ 다 작음... (하나 빼고). 경해 축제 1부엔딩 곡 바달래요

박수빈:얼굴만 보면 만능 음악인(돈스파이크+육종환+이효리+수지...) 그리고 텔... (이하 생략). 상큼한 매력으로 교감선 생님까지 반하게 하는 여자. 그녀의 께(EX)블랙핑크-휘파람 추면서 입술 활기, 태민-무브를 보면 안 반할 수 없음. 그리고 지각비 10000원 줌 내라



박진영:베이비파우더 향 향수를 뿌리지만 본인 살 냄새라고 주장. 만사에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두가 내 발 아래 마인드 백옥피부로 반 친구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함. 별명은 (조)동아리 다 이어터.

박지윤:미녀임. 첫인상은 도도하나 알고 보면 뽕뽕종족. 남 귀엽다 하는 걸 좋아함. 때, 사람을 안 가려서 이대로 가 다간 선생님한테 할까봐 걱정됨. 진짜 안 귀여운데 귀엽다고 함 ((EX)우리 반 육종환, 류현진). 귀여움 인정받고 싶은 남자는 여기로...

정수현:감쪽한 4차원 매력의 귀요미(본인 주장). 모든 말이 기-승-전에 서 끝남 결론이 없음. 여자 김중민. 생명보험 든 남자 환영 빠른 암세포 생성 기능. 암세포도 생명 아니니까요 애완동물로 세포 하나 키우고픈 분 환영. *(셀카)고지 찌로

박민경:찌르르르 찌르르르 황소개구리 급 목소리의 소유자. 화장실이 집안(뽕) 싸는 거 좋아함. 입술 위의 점 김 아니니까 떼 주지 마세요. 상당히 설투라고 함. 목소리 진짜 큼 학교가 진양호인데 문산에서 애 목소리 들림. 환경 아니고 진짜로

권현정:엄청난 미모. 깨비의 집사이며 11반 엘리트. 못 하는게 없는 우리반 1등(부러움). 차도녀같은 첫인상과 다르게 웃음이 매우 해품 웃음 포인트 특이. 권지용이 본인 먼 친척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함.



황두영:스스로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했으나 결석한 날 선생님들이 안 찾아서 속상함. 졸리면 주둥이 내미는 장거리 서현진 단거리 류현진. 끼 넘치는 학년장으로 복도에 나오면 RUN A WAY. 친구 기억을 잃게 하고도 장난을 치는 11반 최고의 프로 시비러. 아침밥은 학교에서 먹어야 끝맛

최성민:11반 완소 퍼펙트 반장. 장래희망:진주가 낳은 최고의 셀렐. 미리 싸인 받으시길. 컴퓨터 잘 만짐. PPT+발표계의 호날두. 황두영 바지 벗기고 쫓기다가 바닥에 머리박고 기억 잃은 과거 있음. 잠이 많음. 잠 많음.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직계 6대손 뽕 뽕 뽕

장한이:참 변 태. 영어 발음이 원어민. 본문 읽기 서를 목소리 진짜 좋음 미래의 asmr 유튜브 채널 세계 1위는 따 놓은 당상. 11반 애(구)동(영상)요정임. 상당한 소두. 볼 누르고 심게 생겼음. 길 가다가 보이면 놀려도 됨. 아나콘다(유비)를 좋아함.

[궁금타파] 헌혈, 그것이 궁금해! 진주 헌혈의 집을 찾아서

진주시 한 해 26,818건 청소년 헌혈비중 35%

겨울방학 직전, 학교에 헌혈 버스가 왔던 것이 기억난다. 헌혈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바늘? 피? 봉사활동? 헌혈증? 아니면 초코파이? 헌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이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쩐지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궁금한 것을 못 참는 필통. 그래서 진주 헌혈의 집을 찾아 직접 헌혈도 하고 헌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주 헌혈의 집은 어디?



진주에서 상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2 곳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의집 진주센터는 진주시 진양호로 526 명원빌딩 8층에 152.99㎡ 규모로 채혈침대 7대와 혈장 성분채

혈기 5대, 혈소판 성분채혈기 1대, 채혈혼합기 7대 등 현대화된 장비를 갖췄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센터(055-745-2611)로 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 꼭 체크!

1. 우선, 헌혈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헌혈이 가능한 연령은 16~69세 사이입니다.
2. 체중 또한 너무 낮은 경우에도 헌혈은 불가능합니다. 헌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체중은 :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헌혈 전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혈압, 맥박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헌혈이 가능하며, 헌혈을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헌혈의 횟수 또한 일 년에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할 때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혈하는 단계>

1. 전자문진검사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전자문진검사실이 있다. 여기서 자신이 헌혈하기에 적합한지 1차 검사를 한다. 부적합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 나가자. 검사를 끝내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다.

2.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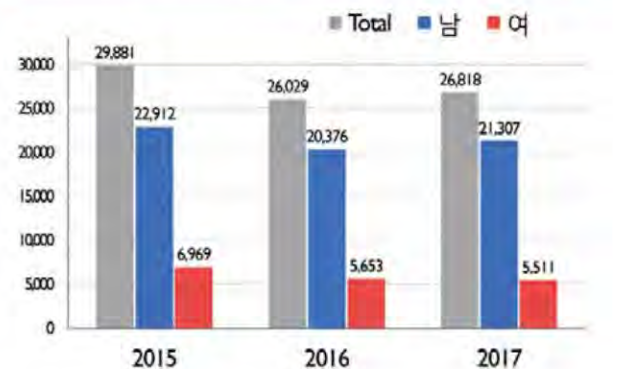
전자문진을 끝내고 다시 간호사분과 상담을 한다. 헌혈하기 적합한지 재확인 하는 것이다.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헌혈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보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상담이 끝나면 헌혈을 할 준비를 한다.

3. 헌혈



침대에 누워서 팔을 걷고 간호사가 혈관을 찾아 바늘을 꽂고 바로 피를 뽑기 시작한다. 헌혈하는 시간은 약 8~10분 정도이다. 헌혈이 끝난 뒤엔 보람감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맛있는 초코파이와 이온음료를 먹으면 된다. 5분정도 휴식하고 귀가하면 된다.

진주시 헌혈통계 (단위 건)



헌혈에 대한 궁금증 Q&A

Q1. 헌혈하면 피가 맑아진다?

A. 헌혈을 하면 탁하고 더러운 피가 나가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면서 피가 깨끗해진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혈액도 원래 혈액과 동일한 성분이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일부 전문가들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 세포가 활성화되므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Q2. 헌혈하면 빈혈이 생긴다?

A. 결과를 먼저 말하면 헌혈을 한다고 빈혈이 생기지 않습니다. 헌혈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혈액량은 최대 400ml 정도입니다. 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혈액량의 7~10% 정도입니다. 우리 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체 혈액량의 15%를 여유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양이 빠져나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혈은 우리 몸의 예비 혈액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 이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를 하면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1~2개월 후에 예비혈액 또한 되찾는다고 합니다. 단, 처음부터 빈혈이 있는 사람은 헌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혈하기 전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 빈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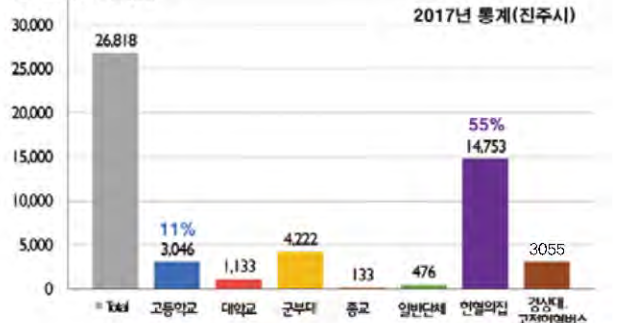
Q3. 헌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A. 간혹 헌혈을 하면 빠져나가는 혈액량만큼 체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혈액량이 줄면서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들지만, 다시 혈액이 생성돼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백혈구·적혈구 등을 생성하여 늦어도 2주 안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불필요한 체지방량을 줄이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헌혈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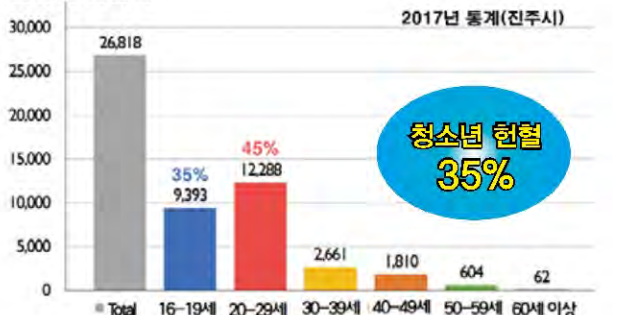
Q4.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A.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 비용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증이 있으면 수술이나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수혈할 때, 헌혈증의 개수만큼 혈액 팩의 비용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혈액 팩의 비용에만 적용되며, 수혈에 필요한 검사나 재료대, 시술 비용 등은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장소별 헌혈건



연령별 헌혈건



청소년 헌혈 35%

[필통뮤직차트] 청소년 평점 봄노래 CHART!

봄! 봄바람을 맞으며 듣기 좋은 노래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요! 파릇파릇 새싹이 피는 소리, 개굴개굴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기지개 켜는 소리,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교실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나 봐요~! 그래서 필통이 아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잘 어울리는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 9곡! 이 노래를 들으며 친구 혹은 가족, 연인과 행복한 꽃놀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와우 봄이다!"

영상 10도를 밀도는 포근한 기온에 비 온 뒤 깨끗해진 하늘까지. 더할 나위 없이 맑은 봄날씨가 이어지자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6년째 음악 팬들의 봄 마중을 나왔다.

'벚꽃 엔딩'은 엠넷 '슈퍼스타 K3' 준우승팀인 버스커 버스커의 대표곡으로 매년 봄만 되면 카페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온 거리에 울려 퍼지는 진풍경을 연출해왔다. 해마다 이 팀에 상당한 저작권료를 안겨준다는 의미에서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매일 새로운 앨범이 쏟아지듯 발매돼 음원 서비스 톱100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 요즘에 이례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벚꽃 엔딩'은 올해도 일간차트(16일 기준) 100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멜론에서는 3월16일 85위에 올랐으며, 벅스에서 16일 75위에 등극했다. 이로써 '벚꽃 엔딩'은 2012년 곡이 처

음 발표된 이래로 7년 연속 실시간 차트 100위권에 들어오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다만 올해는 차트 진입 시기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지니뮤직에 따르면 '벚꽃 엔딩'이 일간 기준 톱 100에 진입한 날은 2015년 3월 1일, 2016년 3월 3일, 2017년 3월 11일이다. 또한 지니뮤직에서는 '벚꽃 엔딩'이 일간 차트(16일 기준) 100위권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곡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 2위, 2016년 20위, 2017년에는 89위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봄에 맞춰 들 수 있는 계절 노래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도 '벚꽃 엔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몇 년 새 하이포·아이유 '봄 사랑 벚꽃 말고', 로이킴 '봄봄봄', 10cm '봄이 좋냐??' 등 다양한 봄 노래가 청자들의 선택지 위에 올라온 것이다. 또한 공개된 지 6년이 넘으면서 인기가 한풀 꺾일 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TOP 9

Top9 순위 결정은 어떻게?

①필통기자단에게 '봄' 이면 떠오르는 노래를 추천받음 ②9곡을 선정하고 모든 기자가 9곡 모두 전곡을 듣고 평가함. ③가수와 장르, 그리고 개인의 음악적 취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래 그 자체만을 듣고 필통기자단 22명이 각 곡에 평점을 제출.(평점은 10점 만점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통일함) ④9곡의 평균 평점을 구해 순위를 결정함. (* 본 순위와 평점은 필통 기자단의 평가로 시중의 음악 차트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벚꽃 엔딩'이 올해도 차트에 진입한 만큼 향후 몇 위까지 올라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니뮤직은 '벚꽃 엔딩'이 2016년에는 100위권에 82일간 머무르며 최고 1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7일간 100위권에 머무르며 23위까지 찍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서는 '벚꽃 엔딩'으로 버스커 버스커 보컬이자 리더인 장범준이 청진 저작권료가 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위

벚꽃엔딩
 버스커버스커 (평점: 8.5)
 2012.03.29.

감상평
“몇 년째 듣고 있는데 하나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9곡의 노래 중 봄을 위한 곡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봄이라는 계절을 가장 잘 나타낸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봄 특유의 나른함과 따뜻함, 또 낭만적인 그 무언가. 그걸 가장 잘 나타낸 노래이기에 몇 년이나 지났어도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 받는 것 같아요.”

2위

봄봄봄
 로이킴 (평점: 8.2)
 2013.04.22.

감상평
“이 노래를 들으면 신이 나고 들뜨게 돼요. 다른 노래들은 거의 다 간질간질하거나 잔잔한데 이 노래는 뭔가 사람을 들썩이게 하는 명량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봄을 노래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서 아 정말 좋은 노래구나 했습니다. 슬쩍 알려드리는데 제 핑크 중 하나예요.”

공동 3위

우연히 봄
 로꼬, 유주 (평점: 8.0)
 2015.04.08.

감상평
“우연히 봄ㅠㅠ 완전 제 스타일ㅠㅠ 랩 부분도 좋고 유주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공동 3위

봄인가 봐
 에릭남 (평점: 8.0)
 2016.03.04.

감상평
“우연히 봄 멜로디 자체가 상큼하고 재밌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음.”

5위

봄 사랑 벚꽃 말고
 아이유, 하이포 (평점: 7.9)
 2014.04.08.

감상평
“봄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듣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다가오는 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아이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들을 때마다 괜히 제가 다 콩닥콩닥해진다니까요^^”
“내 얘기 같아서 공감 100%. 진짜 가사처럼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진다.”

공동 6위

봄날
 방탄소년단 (평점: 7.8)
 2017.02.13.

감상평
“봄날~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고, 뭔가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이 아닌 아련하고 따뜻한,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 단지 아이돌의 노래라고 치부하며 걸러들기엔 그 감정과 분위기가 참 아까운 노래.”
“노래 제목인 봄날이 꼭 계절만을 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들어도 좋을 것 같지만 굳이 노래 분위기를 계절로써 표현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기. 쌀쌀하면서도 햇볕은 따뜻한 딱 그 시기에 길을 걸으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동 6위

봄을 그리다
 어반자카파 (평점: 7.8)
 2011.05.17.

감상평
“어반자카파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고, 곡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날이 좋은 봄날, 카페에 앉아 풍경을 구경하며 듣기 제일 좋은 노래인 것 같다.”

8위

봄이 좋냐
 10cm (평점: 7.7)
 2016.04.01.

감상평
“커플들을 부정하는 저항정신에 감동하는 동시에 봄의 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9위

봄날의 기억
 비투비 (평점: 6.9)
 2016.03.28.

감상평
“중간에 랩 부분이 재치가 있어 노래가 질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봄 느낌 물씬 나는 노래들이죠? 봄은 예로부터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입학, 새 가방, 새 연필, 새 실내화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그 모든 시작을 필통이 추천하는 감성충만, 기분 업 되는 봄 노래들과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통뮤직차트는 청소년들의 감성으로 4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맏칸년맏반] 새로운 반은 어때?

벌써 잊진 않았지? 진주고 운동짱 1학년 4반!

2017년을 기억하나요? 1학기 추구 2등, 농구 1등이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뛰어난 운동 실력을 자랑하던 우리 진고 1학년 4반! 공부 1등은 늘 생각 "만" 하고 있었죠 ^^ 2학년이 되어 모두 뽀뽀이 헤어졌는데 잘 지내고 있겠죠. 신문 보고 지난해를 떠올려 봤으면...



나의 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은?	하고 싶은 말!
1.강성민	귀엽고 닭다리 양보할 수 있는 여자	내년에 신동원 잡는다.
2.강혜성	귀여운 여자	다현♥
3.권도원	진고 1-4반 남정네들	Is this the real life?
4.권명재	댄스부/키 작은 여자	부산촌놈
5.권준하	단발 성애자♥	단발은 사랑입니다♥♥
6.김광원	자주 웃고 리액션 잘해주는 여자	두루와~
7.김동찬	키 큰 조장환	조장환=김광원(빈)
8.김원욱	한현경	곧 마산간다
9.김종윤	키 작고 안경 쓴 여자 키는 150쯤?	시.공.조.아
10.김준형	나보다 키 작은 여자	피플파킹
11.김호인	춤 잘 추는 여자	피플 파킹 사랑해요♥
12.노강민	민지♥	부산 여행 재밌게 가자!
13.신동원	포켓볼에 넣어 다니고 싶을 정도로 지켜주고 싶은 여자	내년 진주고 축제 헬스부 기대해주세요
14.안희찬	안경 쓰는 모습이 예쁜 여자	없음.
15.여태빈	착한 여성 분	하.. 벌써 2018년...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16.오준섭	수수한 여자	연설 조 다...
17.윤현준	귀엽고 애교 많은 여자	없다
18.이기훈	키 큰 여자 170이상♥	내 키 183cm
19.이동빈	정연♥	ㅂㅇ르~
20.이인우	볼살 있고 키 작고 귀여운 사람	↑ 보검 총 극혐
21.임수중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글 쓰는 사람	키 크기 싫다(키 184)
22.정성훈	어깨에 팔 올리기 편한 여자(참고로 내 키 178)	외로워임
23.조규진	나랑 같이 1일 1팩 해주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 맛있는 여자	2018년 행복한 일만♥+소녀시대 내 여자♥
24.조율	데이트갈 때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여자	새해 용돈 많이 받아서 신나게 놀기 빈다
25.조장환	김동찬♥	김동찬=강동원
26.조정빈	자주 미스 짓고 귀여운 여자	Y.O.L.O
27.조현빈	키 큰 하영수	레알마드리드
28.최승욱	귀엽고 강아지 상	여친 구함
29.하병진	키가 작고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박보영)	없음.

우리반 담임



하영수 선생님(영어)
선생님의 영어 이름 "Macho Ha"와 걸맞게 학생들에게 항상 열의가 넘치시는 선생님이다. 덕분에 영수쌤 수업시간에는 영어보단 인생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다. 중간 중간 내던지는 아재개그도 정말 매력 있는 우리 선생님.

멋진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기훈: 흰칠한 키를 자랑하는 친구. 예의바른 친구라 수업시간 대부분을 선생님께 인사하는데 보낸다. 과학 선생님과 이름이 같아 이기훈 선생님께 총애(?)를 받는 친구다.



여태빈: 모의고사로 진주 1등을 한번 찍어냈던 엄청난 공신이다. "물리는 예술이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영어로)" 등 많은 유행어를 남겼고 우리 반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반장이다.



임수중: 2학기부터 부 반장을 맡았고, 우리반을 농구1등으로 이끈 승리의 주역이다(예선전 36-0으로 승리함). 굉장한 자유분방해 기숙사를 박차고 나와 "탈문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키 184cm에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친구인척 한다.



권준하: 연극영화과를 목표하는 만큼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다. 덕분에 웃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웃음을 준다. 17년간 다이어트중인데 가끔 매점뽀를 맛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김준형: 폭풍 동안미모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친구. 이 친구가 없으면 반이 재미가 모두 없어질 정도로 분위기를 잘 띄운다. "~~하와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규진: 4반 대표 핑크덕후다. 평소에는 안경을 끼는데 꾸미고 나면 웬만한 여자보다 예쁘다. 소녀시대를 10년동안 좋아한 데뷔팬 이다. 얼마전 태연콘서트를 다녀와 행복에 빠져있다.



정성훈: 4반 대표 총신총왕이다. 이번에 다시 수문재에 들어간데다가 흥도 많아서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잘 논다. 피부도 좋은데다가 비율도 좋아서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강성민: 4반에서 멋쟁이를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다. 명치는 크지만 하는 행동이랑 말투가 귀여워서 매력이 넘친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노는데 가면 항상 있는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다.



오준섭: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친구다. 친구들에게 "노빠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친구다. 이번에 부회장에 당선되어 학교를 이끌어 나갈 자랑스러운 친구다.



조현빈: 4반의 대표 돼지이다. 돼지치곤 글씨 않은 복권의 외모를 보우 중이다. 그래서인지 매일 다이어트를 외치지만 매점에 늘 출몰한다.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보려고 양표값 10만원을 낼 정도로 야구광이다.



신동원: 진고 축제를 대표할 헬스부에서 차장을 맡고 있고 그만큼 몸 열을 빠지는게 하나도 없지만 여자친구가 없다. 이전 축제때 아쉬움이 커서 내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중이다.

[맷캉년맷반] 애들이 잘 지내고 있니?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제일여고 2학년 3반!

겨울을 지나 봄이다. 2학년을 지나 이제 고3이 되었을 친구들. 힘겨운 시간을 이제 막 시작한 3월의 어느날, 옛 기억을 떠올리며 친구들을 생각해 본다. 수많은 추억들, 함께한 시간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봄꽃 같았던 제일여고 2학년 3반, 그 교실로 잠깐 돌아가 본다.



우리 담임 권용태 선생님
체육 담당 선생님이자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계신다.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시고 가끔씩 버럭하시지만 은근 촌데레로 통한다.

우리반 매력 만점! 매력동아들^^



김하은: 승무원 동아리 부장이며 우리반 몸매와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모태솔로 하은이. 2018년 목표는 남자 100명 사귀기라고 하니 남자들은 모두 하은이에게로.



조혜원: 예쁜 얼굴에 섹시한 뇌, 털털한 성격까지 다 갖춘 이 시대의 승리지. 까탈스럽긴 해도 친구를 잘 챙겨주는 세심한 성격에 새초롬한 표정에서 나오는 귀여운 서비스.



정수빈: 새침하게 보이지만 정말 착한 성격의 소유자. 껌꼬리 같은 목소리로 입술을 동그랄게 오므리고 얘기하면 정말 사랑스럽다.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는 멋진 친구!



박지수: 자신이 대단한 부반장이라 말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슬픈 캄캄한 부반장. 우리반의 동네북이며 복채는 박경민이다. 목소리가 아기 같아서 배달주 문할 때 오해받기도 한다. 애교를 잘 부려 친구들에게 예쁨 받는다.



김하늘: 우리반 최강 귀요미. 항상 150cm라고 주장하지만 149cm이다. 보조개와 주근깨가 매력적이고 손이 쫄꼬매서 귀엽다. 콩알만한 게 맨날 까불거린다. 안 친한 친구가 없는 대단한 친화력을 보인다.



안수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정석. 시크한 듯 하지만 웃는 게 예쁜 친구다. 첫인상과 달리 많이 엉뚱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은 아무지게 잘 해낸다.



김유나: 웃을 때 참새가 밥 먹듯이 입을 벌리고 웃는다. 욕을 쓰지 않고 항상 바른말 고운말을 실천하고 성실한 친구다. 엉뚱하고 철질 맞으며, 밥을 천천히 먹어서 가끔 입에 쑤서 넣어 주고 싶다. ♥



강민준: 마사지를 랭크급으로 잘해서 김록경 전 용 마사지가사 되길 일보직전이다. 예뻐데 인정을 안 해서 답답한 친구고. 성격이 착하면서 엉뚱해서 귀여운 친구다.



김다연: 맨날 다이어트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상 손에는 군것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밥도 마다하고 찹을 잔다. 책을 엄청 많이 읽고 활발하나 조용한 알다가도 모를 성격의 소유자.



최서우: 뽕권을 닮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큰 키를 가진 친구다. 애 같고 털털거려서 바보 같기도 하지만 할 말은 다 한다. 잠이 많아 4교시는 돼야 얼굴을 보여주고, 뭐든 맛있게 먹어서 별풍선 싸주고 싶은 친구다.



이지현: 만지고 싶게 생긴 볼을 가지고 있다. 가끔씩 얼굴을 꾸겨보고 싶게 만든다. 애교가 많고 스킨십을 자주한다. 자체 좀 했으면. 자기 같은 아기자기한 게임을 많이 한다. 하지만 잘하진 못한다.



윤수진: 별명은 윤꾸우. 싫어하는 거 읊차 닉넴 부르기. 성격이 털털하고 촌데레에 끼가 많아 반하기 일보직전.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귀여움이 상승한다. 의리가 강한 친구다.

나의 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1.강민주	키 크고 안경 안 쓴 남자	김록경 010-3804-9765
2.강승희	새콤달콤 껌질 혀로 3초 안에 벗기는 남자	352-9184-7361-33 농협 강승희
3.김다연	늦게 자는 사람	“”
4.김록경	섹시퀸 이준니영	모델 갈 김예지 구한다.
5.김소민	2학년 3반 15번	민아 사랑해♡ 헤인이두~ 윤주도
6.김예빈	강다니엘	수빈아 나도 너가 좋아♥
7.김예지	성격 좋은 사람	록경아 니랑 가자♡
8.김유나	바이킹 앞자리 선호하는 사람	최지원 양치 좀 맨날 하자 + 한진휘
9.김정윤	웃을 때 예쁘고 나랑 성격 잘 맞는 사람	하늘이 사랑해♡ 저니도 사랑해♡
10.김지현	사소하게 내가 반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남친 이름 적으면 신문 나올 때 헤어져 있더라!
11.김진희	나랑 키 비슷한 사람	지성님..
12.김하늘	눈웃음이 예쁜 사람. 키 170에 최우식 같은 남자	정윤이 사랑해♡ 저니도 사랑해♡
13.김하은	눈코입 자기 위치에 잘 달린 사람	96980201-257210 국민 김하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중
14.류새봄	다정하고 키 크고 수학 잘하는 남자	☆지현이의 세포들☆
15.박경민	세상에서 제일 싫음 (배재현)	재현아 싸우지 말자. 잘하자.
16.박다희	다정하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송이랑진 뽀짝 놀자~!
17.박민희	내 앞에서 욕 많이 안 쓰고 담배 안 피는 따뜻한 남자	친구들 모두 1년 동안 고마웠고 재밌었어~! 꼭 동창회 하자야♡
18.박지수	깜찍하고 공부 잘하고 자상하고 귀여운 남자	고3 파이팅! 박경민 보고싶어.. 미니 바보. 우리 저니 가지마. 사랑해
19.서연화	키 183cm에 전직 유소년 국대였던 노래 잘하는 남자	정택은 결혼하자. 1년만 기다려
20.양세연	키 크고 잘생긴 연하남	나중에 웹툰 그리면 많이 봐줘라
21.윤수진	매력 있는 사람	사랑해♡♡ -윤꾸우가-
22.이다현	내 성형 견적 감당 가능한 사람	13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공포증 소유
23.이선빈	한 매력하는 매력씨 ^^	룰루
24.이주원	민윤기(하얗고 입이 예쁜 사람)	커서도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25.이지현	내 기준 귀여운 남자. 자진 몰라야 함. 키 175 이상	러블리 몸♡
26.정도현	키 큰 남자	씨엔블루♡
27.정수빈	황민현	내 거
29.조혜원	상남자	큐
30.최서우	착하고 자상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서울에대 19학번
31.최지원	다정한 성격에 여우를 닮은 남자	봄동아! 감기 빨리 나아!
32.최지혜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	김지현 010-2646-6687
33.한진휘	군대 간 김하늘	저글링 잘하는 김하늘 우대
34.허민아	웃 잘 입는 잘생긴 사람 (중재씨)	노아노아 20살 때 나랑 술 모술 사람?
35.허유진	몰라..	멍멍멍 멍멍멍멍 멍멍멍멍!
36.안수현	키크고 귀여운, 표현 잘하는 남자	♡경혜요정 도비 감자 지킴이♡



김지현: 어떤 머리 스타일도 다 소화해내는 외모. 다리가 특히 예쁜 친구다. 털털한 성격에 춤 잘추고 노래 잘하는 모델지망생이다. 교칙을 지키지 않지만 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는 믿음직한 친구다.



박다희: 피카소 동아리 부부장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항상 웃고 있어서 눈가에 주름이 빨리 생길 것 같은 친구다. 하지만 미술학원에선 웃음이고 뭐고 좀비가 된다고 한다.



박경민: 차침 귀요미이자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일탈하는 최고 일탈자. 가끔 귀가 찢어질 정도로 버럭한다. 3분만 맨 뒷자리에 독도처럼 앉아있다. 그 자리가 핫할 일 때마다 “박지수 빨리 자리 앉혀라. 조용히 시켜라.” 하고 명령하곤 한다.



김록경: 작은 얼굴에 예쁜 눈을 가진 친구다. 우리반 분위기를 띄워주고 잘 웃는다. 고민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다. 장난도 잘 치고 친화력도 좋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 매력이 넘치는 록경이는 준영이를 좋아한다.



김예지: 3반 대표 여신으로 가끔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다. 하지만 실물이 더 예쁘다. 날씬한 몸과 달리 급식을 두 판씩 먹지만 그것마저 사랑스러운 예랑동이다. 학교에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다.



박민희: 일단 엄청난 라이언 덕후다. 라이언이 그려진 모든 물건을 소장하고 있다. 놀리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아주 꿀잼이다. 착하고 계속 부르고 싶게 만드는 마성의 소유자다.



김정윤: 애교가 엄청 많아서 주위 친구들이 거북해한다. 보조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성격이 활기차고 최근에 한승연 닮았다는 소리를 들은 후로 항상 신이 나 있다.



강승희: 엄마 같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는 반장. 활기찬 웃음과 목소리로 주변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속은 예리고 감성적인 마음을 가져서 영화를 볼 때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린다.

[직설인터뷰] 자퇴생 청소년운동 활동가 박태영

대학입학 거부 선언, 청소년운동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운동들이 있다. 여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대중운동 등등. 이 모든 운동들 중 오로지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운동이 있다고 한다. 아직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다. 청소년운동 활동가 박태영 씨를 소개한다.

Q.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박태영이고 활동명은 '이글'입니다. '아수나로'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이고,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퇴생 이고 작년에 대학 입학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Q. 청소년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올해로 스무살이 되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불합리한 일들이 있거나 그럴때 선생님들과 많이 싸웠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박을 하기 위한 제 논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나 이론을 찾아보니깐 자연스럽게 청소년 인권운동의 담론에 접하게 되었고 또 아수나로라는 단체를 알게 되서 활동하게 됐어요.

Q.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집단 자체를 억압받고 차별받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성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청소년들의 현실을 좀 낫게 만들고 인권이라는 담론을 가져와서 청소년에

게도 인권이 있다. 그런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운동중 하나입니다.

Q.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첫째로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을 조직할 힘이 없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둘째로 청소년이라는 집단 자체가 갖는 한계로 수익원이 없어 운동을 위한 자금이 항상 부족해 힘듭니다.

Q. 청소년 운동을 할 때 친구들의 시선은?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저를 잘 아는 친한 친구들은 박태영은 그런 애니깐 그러려니 하는데 안 친하거나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청소년 운동을 한다는 것이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Q. 아수나로는 뭔가요?

2006년부터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인 단체예요. 최근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법 제정,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이라는 3가지 입법과제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Q. 청소년 운동에서 성과를 보인 적은?

사실 청소년 운동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지치는 운동이죠. 하지만 경남에서 조금씩 청소년 운동이 성장을 하고 있고,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은 변화를 위한 원동력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해요.

Q. 향후 활동계획은?

지금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운동단체에서 상근활동가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진주 안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옛날 1987년 D고에서 전교생이 2000명 정도 됐는데 7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운동장에 나와 시위를 했어요. 두발자유화, 민주적인 학생회를 보장하라는 주장이었죠. 당시에는 학생회에 대한 학교

의 개입과 마찰이 심했거든요. 당시 주동자들이 퇴학과 정학을 당했는데도 4개월 동안 학생들이 싸워 결국은 다 복학을 시키고 이사장에게 투쟁기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진주에도 그런 성공적인 고등학교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 작업과 영상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취재/ 김가나(경해여고2)기자]

[기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교, 가오를 강요받는 사회

새학기가 시작되면 3학년이 된 학생들이 '가오'를 잡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입생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라 요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후배의 반에 들어가 큰 소리를 치기도 한다. 처음 보는 후배에게 당연하게 반말을 하면서 자신은 존댓말을 듣기를 원한다. 자신이 선배이기 때문이다. 아랫학년 학생을 '찍는다'라고 하는, 낙인 찍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 결과, 아랫학년 학생은 찍히지 않기 위해 윗학년의 눈치를 보게 된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찍힐까봐' 말하지 못한다. 윗학년은 후배한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저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굳이 가오를 잡아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파편화된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단으로 존재하고, 위계는 집단 사이에 스며든다. 학교 안에 가장 큰 덩어리 집단 중 하나는 '학년' 이

다. 학년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선후배 위계)는 학년 사이의 갈등이다. 그럼 왜 이런 위계질서가 발생하는 것일까?

학교는 '학제'를 통해 학년을 구분한다. 일반적인 경우,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구분된 시공간에 존재한다. 학교라는 같은 건물 아래 있지만, 분리된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1학년 교실과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이 층이나 위치로 구분되어 있고, 학년마다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의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시간과 구역도 다르다. 이것이 학교가 '학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공식적인 분리이다.

**“내가 1학년일 때 당했으니까 해도 돼,
꼬우면 선배되서 하던지.”
하는 안일함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제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은 분리만이 아니다. 학제는 계급을 나누고, 위아래를 인식하는 위계질서를 만든다. 각 학년의 체육복, 명찰 등의 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한다. 눈으로 보여지는 확실한 계급을 나누고, 그에 맞는 행동들을 강요한다. 한 학생이 처음 보는 다른 학생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것은 '명찰의 색'이다. 높임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얼마나 예의를 갖추며 호칭은 무엇으로 할지. 아무것도 아닌 단색의 이름표는, 학생의 행동양식을 결정한다.

학교의 위계질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위계는 제도와 문화에 의해 구성되었다. 계급을 칼같이 나누는 공간, 분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공간일수록 위계는 단단하다. 학교는 학년 간의 위계질서를 필요로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차지하는 구조는, 그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를 되물리는데 최적화된 구조다. 쓸모 없어 보이고, 피곤하고, 불평등한 학년위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새로 입학한 1학년생들은 새로운 학교의 규칙에 당황하며 반발심을 가진다. 특히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가 그렇다. 하지만 3학년쯤 되면 반발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논리를 어느정도 내면화하게 된다. 3학년은



[자료 사진 / KBS '후아유-학교 2015'의 한 장면]

학교는 폭력적인 구조를 조장하고 묵인한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후배 사이의 권위주의와 갑질문화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후배가 폭력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설사 학년 사이에 위계폭력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더라도, 책임에서 학교는 쏙 빠진다. 학생 간 폭력의 책임은 가해학생에게 있을 뿐이다. 학생 위계, 학년 위계라는 학교의 본 얼굴을 숨긴다. 부담은 학생들에게만 돌아간다. 선배는 후배에게 알보이지 않기 위해, '선배'라는 틀에 자신들을 가두고 '가오'를 잡는다. 후배에게 알보이지 않으려 후배를 억압한다. 후배는 억압하는 선배를 무서워한다. 학교는 어부지리로 학생들을 수월하게 통제한다.

폭력은 매해 되물림된다. 당한만큼 되물려주는 형태로 말이다. 모두가 공정하게 1, 2, 3학년을 다 겪는 구조에서 불평등을 알아차리긴 쉽지 않다. “내가 1학년일 때 당했으니까 해도 돼, 꼬우면 선배되서 하던지.” 하는 안일함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조의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평등해질 수 있다. 이제는 학교에게 이 구조와 폭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글쓴이 : 케치, 무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06년부터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청소년운동단체입니다. 아수나로 진주시부는 언제나 함께할 회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입 및 후원문의 : 010-9770-8603



<2017년 경북 구미의 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수차례 괴롭힌 사진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4학년 김보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우리의 특권이죠 도전하셔서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라면 한번쯤 연예인을 꿈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한 대표적인 학과가 바로 연극영화학과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의 직접적인 조언은 영화, 연극 또는 연예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4학년 김보민 선배를 통해 학과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Q.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저는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다니는 학생 김보민입니다. 올해 4학년이 되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는 현재 3개의 과로 나뉘어 있어요. 영화학과, 연극학과, 공간연출학과인데요. 영화학과는 대부분 연출지망생들이고 영화를 만듭니다. 입학할 때는 따로 구분이 없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연출전공, 촬영전공, 제작전공, 녹음전공 등으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 영화에 참여를 하고 졸업을 해요. 연극학과는 연기전공, 연출전공, 뮤지컬전공, 기획전공 등이 있고 연극제작을 위주로 합니다. 공간연출학과는 영화나 연극 쪽 미술을 하는 학과인데 영화 미술(프로덕션디자인)이나 연극 무대 미술을 주로 합니다.

Q.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

저는 이쪽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연극동아리를 들고 전국적인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제게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학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진학을 위해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저는 정시로 입학했기 때문에 따로 과를 위해 준비한 것은 없었고 수능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Q.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에 등급컷?

이번 신입생들에게 물어보니 정시 최초 합 컷라인이 국어 99 1등급, 수학 88 2등급, 영어 2등급, 생운 77 3등급, 사문 95 1등급이었다고 하네요.(앞 숫자는 백분위)

Q. 면접 때 받은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면접을 본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네요. '인생은 살만할 가치가 있는가?', '너는 똑똑한가?',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인가 이야기인가?',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은가?',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꼭 중앙대인가?' 그리고 '부비부비'가 뭐냐고 물어보신 교수님도 있으시네요.

Q. 연극영화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배우나요?

연극영화과여도 일단 종합대학인만큼 다른 일반학과 대학생들과 같은 대학생활을 합니다. 전공, 교양, 필수과목 등 수업을 다 들어야하고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공수업중에 실기 위주의 수업들이 있는데 그 수업들에서는 실제로 연극, 영화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론수업들은 주로 연극, 영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고 연극이나 영화를 감상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Q. 무대 연기와 카메라 연기의 차이?

무대 연기와 카메라 연기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대 연기는 관객들이 배우와 꽤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감상을 하기 때문에 작은 표현들 보다는 몸짓, 발성과 같은 큰 표현들이 더 중요하구요. 카메라 연기는 상대적으로 카메라와 배우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정이나 작은 행동들 같은 섬세한 연기가 중요합니다. 또 무대 연기는 연기와 관람이 동시간대에 진행되기 때문에 연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없지만 카메라 연기의 경우 테이크마다 연기를 반복하게 되고, 또 샷은 달라지지만 배우는 같은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연극영화학과와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학과였는데 요즘은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가 이제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영화과의 경우 여성:남성이 2:1 정도이구요. 연극과는 연기전공은 뽑을 때부터 성별을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거의 1:1입니다. 공간연출과의 경우 9:1 정도입니다.

Q.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주로 어떤 직종을 선택하나요?

우선 전공을 살려 배우가 되거나 감독이 되거나 연극, 영화 현장에 스태프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쪽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교수나 선생님 등 교육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백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Q. 재학생이 보는 연극영화학의 전망은 어떤지?

연극, 영화를 한다고 하면 굶어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막상 학과생으로 느끼는 것은 생각

보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Q. 선후배 중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있나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더 잘 나올텐데 중앙대 연영과 출신 혹은 재학중인 연예인이나 감독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정우, 김수현, 현빈, 김희애, 손현주, 신애라, 박신혜, 여진구, 강제규감독, 윤종빈 감독 등등 정말 많아요.

Q. 연극영화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준비하셔서 선후배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남출신 학생인데요, 수도권에 비해서는 접할 기회가 적은 분야이기도하고 준비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관련학과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응원하고 싶네요. 그리고 선풍 도전하기 힘든 분야일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극 · 영화학과 소개 및 진출분야

유사학과 - 연극학과, 연극 전공, 연기 전공, 영화 전공, 영화학과, 연기에술학 전공

[연극영화과 개설 대학 현황]

학과	학교
연극영화학과	가야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양대학교 명신대학교
	배재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중부대학교 한성디지털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상명대학교
영화과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경대학교 영산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청주대학교
뮤지컬전공	동서대학교
연극영상학과	호남대학교
연기 · 연출전공	영산대학교
방송연예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삼척대학교
	세명대학교 영산대학교
연기학과	경기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서대학교
연기에술전공	성균관대학교
방송연기학과	청운대학교
코메디전공	에원예술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극동대학교

학과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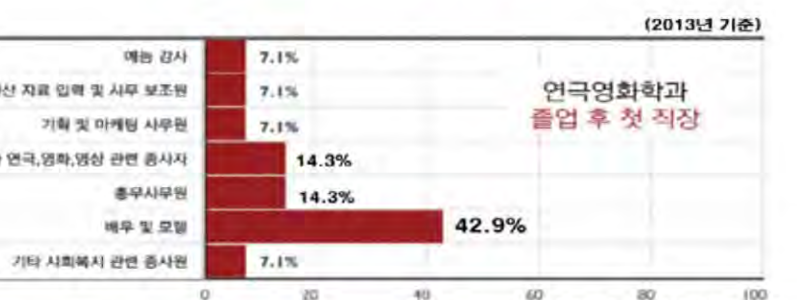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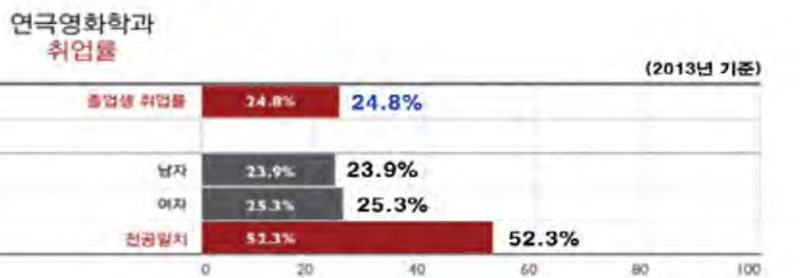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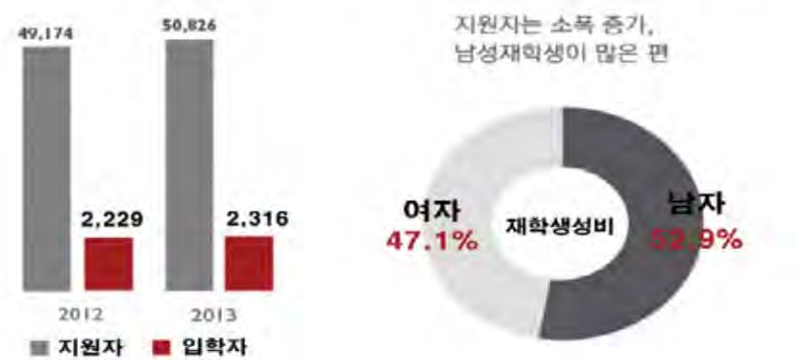
최근에는 대중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 연극과 영화는 대중이 가장 즐기는 것으로 이미 생활 속의 중요한 예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극 · 영화학과는 연극 · 영화의 이론을 연구하고 실기 능력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또, 연극 · 영화학과에서는 교양과 지성,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공연 · 영상예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과 준비 사항

연극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기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영화의 경우도 입시뿐만 아니라 진학 후 대학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실력을 갖춘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합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도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예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과 선택을 위한 조언

연극영화 분야가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은 영역'이니까 해 볼 수도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인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취재/ 주예진(삼현여고3)]

교과교실제, 학생들 쉬는 시간 뺏는 것이 목적인가?

유명무실, 교과교실제 문제점 인식하고 개선해야

현재 교과교실제 시범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과교실제란 중·고등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환경을 마련해 학생들이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찾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수준별·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사가 각 학급을 찾아 이동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달리 학생들이 교과목에 따라 지정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수업 형태이다. 교과교실제는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교과교실제의 목적만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실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데다 강의식 위주의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탐구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교실제는 유명무실이나 다름없다. 매 시간마다 교실이 바뀌기는 하지만, 교실 내부 구성은 똑같다. 수업 방식 역시 교과교실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쉬는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고, 매 시간마다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은 변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한 교실을 여러 학년이 나눠서 사용하게 되니 분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열반 형식으로 편법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교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점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는 넓고, 교실은 멀고, 쉬는 시간은 전과 다름없으니 동선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교실을 이동하고 책을 챙기는 데 쉬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니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일부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에서 천편일률적인 수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투명한 결합기식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취재/ 정유진(진양고2)기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상식이 되었네요

이번 기회에 화장실 휴지 비치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2018년 1월 1일부터 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졌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들은 악취와 세균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항상 화장실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화장실 휴지통을 보고 한결같이 놀랐다는 얘기는 재미 있는 뉴스가 될 정도였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국 화장실이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변기가 바뀐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용하는 화장지가 모두 바뀐 것도 아니다. 시행령 한 줄 바뀌면 될 것을 왜 우리는 그동안 불결하고 악취와 세균에 노출된 채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했는지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다.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변기에 휴지를 마구 버릴 경우 변기가 막힐 수도 있고 바뀐 정책을 몰라 휴지를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장실용 휴지를 출시하기 전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물 품질성 기준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휴지로 인해 변기가 막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부득이 하게 생기는 다른 쓰레기를 버려야 할 경우에는 화장실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또, 여자화장실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하는 전용수거함이 있다고 하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용 방법을 잘 지킨다면 더욱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더욱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위생적이고 세균에 노출되어 있던 화장실 환경이 단 한번에 해결되게 되었으니 학생들에겐 좋은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학생들 또한 화장실 휴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물질로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화장실 휴지 비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해 규정된 휴지를 상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학교의 위생용품수거함등도 제대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긍정적인 효과를 학교에서 제일 빨리 누렸으면 한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학생들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우려 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취재/ 한경연(삼현여고2)기자]

혹시 부모님이 편찮으신 곳 있지 않으신가요?

사이비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동안 우리가 잃는 것들

사이비 종교라는 단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사이비 종교란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며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자적으로는 '거짓', '가짜'란 뜻. 거짓 종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교조·교리·신도)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사례로는 흔히들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라던가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면서 다가와 붙잡거나 심지어 가족까지 들먹이며 설교를 하여 듣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심각한 경우에는 비상식적으로 심취해 가정파탄에 이르거나 갖가지 범죄와 교단 내에서 신도간 폭행, 살인까지 발생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포교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으려는 이른바 사이비종교단체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길을 알려달라니, 눈이 참 맑다니 하면서 행인의 팔을 붙잡고 무조건 자기 종교소개를 늘어놓는 구닥다리 수법은 옛말이다. 종교와 전혀 무관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 여론조사, 심리테스트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뽑아 간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판 피싱 사기' 라고 부를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위에도 일명 '도를 아십니까' 등 사이비종교의 포교에 마주친 학생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K군 :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저를 잡고 '도를 아십니까?' 라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당황 했지만 기분도 나쁘고 해서 '도요? 무슨도요? 제주도요?' 하며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웃음)

E군 : 길가다 두 분이 저를 붙잡더니 요즘 많이 힘드냐면서 우리 종교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은 행복하다면서 전화를 받는 척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K군 : 저도 길가에서 붙잡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신이 믿는 신을 같이 믿고 기도하며 죄를 털어 내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책을 주며 읽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바쁘다며 뿌리치고 책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에겐 낯설지 않은 광경일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사이비종교집단의 행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이비종교가 갖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생각하면 학생들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이비 종교의 이상한 포교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심각성을 느껴온 국민들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이비 종교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다. 청원 글에는 "사이비종교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육체 영생 사이비 수법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막무가내로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위험하고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보다 앞 선 것이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삶이다. 종교라는 이유로 무작정 방치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이 위기에 이르면 반드시 그 종교는 국가권력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재/ 정의찬(진주고1)기자]



흡연감지 경보기는 인테리어용인가요?

학생들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를 원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반이 넘도록 머물러 있는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또 서로 배려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 있다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학교는 엄연한 금연구역이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역시 공식적인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흡연 경보기 설치

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9.6%, 여학생이 2.7%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14.7%, 여학생이 3.8%로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듯 학생들의 흡연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내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흡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내에서는 일부 학생들의 공공연한 흡연이 보란 듯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다. 분명 담배냄새가 진동하고 심심찮게 하얀 연기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흡연 경보기는 늘 감감 무소식이다. 당연히 그 작동여부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화장실등 교내에서 흡연을 묵

격한 경우가 많지만 흡연 경보기가 작동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답변들이었다. 즉 경보기가 설치 되어 있지만 작동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흡연경보기가 작동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를 피해 옥상이나 외진 동아리실 같은 사각지대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한다.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특정 구역이나 화장실에서는 항상 담배냄새가 난다.' '어떤때는 여기가 학교 화장실인지 흡연 구역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담배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내 흡연 단속은 선생님이 직접 흡연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거나 학생자치위원회에서 조를 편성해 순찰식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해보면 학교내 학생들의 흡연은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 각 학교마다 동아리 실이나 화장실 등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라



고 판단되는 곳에 작동이 되는 흡연 경보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연경보기만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분명 흡연 학생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흡연 학생들 또한 적어도 학교에서는 자신의 권리보다 다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한다. 학생들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를 원한다.

[취재/ 염성인(진주중앙중2)기자]



애들아, 생기부 왜 너네가 써?

생활기록부의 의미 변질 심각, 대책이 필요해

학생들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책임감, 성실성 등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바로 생활기록부이다. 생활기록부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상황과 이와 관련된 환경 등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장부이다. 원칙적으로 교사가 모든 부분을 판단하여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시절 그 학생의 자질 및 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생활기록부로 판단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정작 교사의 평가가 담겨야 하는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손에 적히고 있는 것이다. 2차 고사가 끝나고 학기 말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활동 내용 및 느낀 점을 적어 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교사 참고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직접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적어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몇몇 학생은 직접 불러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여주며 그 학생과 같이 상의하여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간다.

학생의 모습을 교사가 아닌 본인이 작성하게 되면서 그 생활기록부는 객관성을 잃게 된다. 정확한 관찰에 입각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오로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생활기록부를 두고 동명이인의 생기부가 아니냐는 농담까지 할 정도다. 최대한 자신을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춰서 그 내용을 만들어 내며 글을 쓰는 모습은 생활기록부가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

사진을 보면, "생기부 잘 쓰는 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글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게시글이 아니라 모두 학생들에게 하나의 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려진 글이다. 학생들은 이를 참고해 좀 더 나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한다.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직접 써주는 학원까지 생겨 수도권 학생들은 고액의 금액과 자신의 생기부를 바꾸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공정하고 정확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생활기록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합격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를 학생들이 작성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학교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입시제도의 개선이나 생활기록부의 변질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

[취재/ 임수중(진주고2)기자]

들어나 봤나, 타관대출 서비스?

교육도시에서 어울리는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필요한 책을 빌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곳, 바로 도서관이다. 야자니 학원이나 바쁜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도서관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나 주말 또는 방학때면 누구나 자주 찾는 곳이 도서관이기도 하다.

진주에는 교육도시란 슬로건에 어울리지 않게 도서관 시설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진주시는 도서관이 3곳 운영되고 있는데(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제외) 이는 진주시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90년대 이전에 지어져 규모가 작고 외곽이나 산중턱에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늘 뒤 따른다.

도서관 부족이나 불편함은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도서관의 이용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방법을 제안 할까 한다. 바로 타관대출 서비스다.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책두레' 서비스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시의 소장자료를 원하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통합시스템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 책이 전달되어 그곳에서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주시도 이와 유사한 '책바다' 서비스를 시행중이지만 책바다는 국가주도 서비스로 이용권수, 비용, 절차 면에서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기 번거롭다. 진주시는 현재 5개 시립도서관이 있음에도 서부도서관과 연암도서관 2곳에서만 '타관 반납 서비스'만 실시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는 '타관대출' 서비스가 진주에서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마련하고 시스템이 문제라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분명 한 것은 진주시의 도서관은 부족하고 이용자들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책, 보고 싶은 책을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신청하고 반납할



수 있다면 더 쉽게 도서관을 찾을 것이다.

도서관이 부족하다. 불편하다. 현실만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진주에도 하루빨리 도서관 '타관대출' 서비스가 시작되길 바란다.

[취재/ 광병규(진주고1)기자]

[필통숲] 청소년 익명게시판

가발 쓰고 학교 가봤니?

나는 이번에 G모 여중을 졸업한 ㅇㅇ이야

내가 원래 염색을 자주 하는데 중학교 졸업도 하니깐 겨울 방학 때 핑크색으로 염색했음. ㅋㅋ 개학 2일 전에, 패기 넘치게 학교에 갔는데 아니냐 다들까 담임 쌤이 내일까지 검정으로 염색하라는 거임. 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친구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가 있는데 개가ㅋㅋㅋㅋ “너 가발 많으니까 쓰고 후드집업 모자 쓰고 다녀” 라고 하는 거임ㅋㅋ 진짜 대단하지 않음? 그렇게 난 일주일 정도를 가발 쓰고 등교했고 어떤 선생님도 아니, 심지어는 반애들도 다 가발인지 몰랐음. ㅋㅋㅋ

그렇게 졸업식 날이 되었고 나는.... 졸업식 날 세상 핑꾸핑꾸한, 상큼한 머리를 하고 졸업식에 참석했음. ㅇㅇ 그때 내 머리를 처음 본 선드부 선생님은 보자마자 무릎을 휘청하셨고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내 머리가 겁나 튀니깐. ㅋㅋㅋ 다들 쳐다보고 아무튼 그날의 주인공은 나야나!! 저스...

그날 졸업식 시작하니까 학부모 분들도 위쪽에서 검디검은 머리 중에 상큼 터지는 내 핑꾸 머리가 있어서 놀래셨음. ㅋㅋㅋ 근데 일주일 만에 가발 벗고 다니니까 진짜 속이 시



원하더라.

음 어떻게 끝내야 되냐.... 다들 졸업 축하했고(?) 입학도 축하드림. ㅇㅇ 아 마지막으로, 이거 써서 올려준, 가발 아이디어 내준 천재적인 그 친구한테 감사드립니다. ㅋㅋㅋ

(제보자 : K고 1학년 L학생)

무료양도 이벤트 당첨! 사기 당함!

내가 트위터에서 가온차트 무료양도 이벤트에 당첨이 됨!
부모님께 말했더니 엄청나게 화내시면서 혼을 냈음 나 완전 울고..

그래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하니깐 집 나가라고 하시더라고. 나도 짜증나서 잠옷차림에 맨발로 집을 나갔음. 난 꼭 가온차트가고 싶어서 가도 된다고 할 때 까지 집 안 들어가려고 했음. 근데 무료양도 이벤트 하신 분이 갑자기 계정폭파하시고 같이 당첨되신 다른 분에게 사기인 거 같다고 디엠 왔음.

진짜 너무 어이 없었음. ㅋㅋㅋ 내가 그거 땀에 집나왔는데. ㅋㅋㅋ 그 사람은 얻는 것도 없는데 왜 사기 쳤지;;

그러곤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감. 부모님겐 사기였다는 말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혼났음. 절대 콘서트 같은 거 못 간다고 했음. ㅋㅋㅋ

아 진짜 슬프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안 혼났을 텐데. ㅋㅋㅋ 진짜 왜 혼났지.. ㅋㅋㅋ

(B고등학교 1학년 C학생)

필통숲에 사연을 올려 주세요

신문지면에 채택된 분께는 문상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필통숲>으로 오세요. 진주 청소년, 필통 독자들만의 대나무 숲입니다.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함께 웃고, 공감하고, 화내고, 욕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신문 지면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 중 채택된 사연에는 소정의 원고료(문화상품권 1만원)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만발 사연, 황당했던 에피소드, 아주 특별한 경험, 분노 유발 사연은 물론 부조리에 대한 고발과 제보도 함께 합니다.



[정리/ 전규원(경해여고1), 민세진(제일여고1)기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페북 인스타에 "솔이"를 검색해주세요

진주제일여고 2학년 박솔이



Q.이름이 독특하네요.

A. 소나무의 열매인 솔방울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사계절 내내 곧고 푸르라는 뜻에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Q.자신의 성격을 3단어로?

A.솔직. 긍정.애! 그리고 감정기복.

Q. 15년후의 자신의 모습?

A.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Q.즐거듣는 음악? 선호하는 아티스트는요?

A.가수 편지랑 김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밤이 되니까' 라는 노래를 즐겨 들죠.

Q.나에게 제일여고란?

A.음. 힘든 질문이네요. 일단 고등학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넘 벅찬지만 주위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또 제1학년 4반이었거든요! 좋은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1년 동안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이 잘 따라와 줬어요! 미화선생님 사랑해요♡

Q.지금 당장 5000만원이 주어진다면?

A.외할머니에게 드리고 싶어요. 혼자사시거든요. 드려도 쓰시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외할머니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단답형! 3초만에 답 못하면 패스~ 시작!

Q.지금 남자친구?

A. 없습니다.

Q.자퇴 생각 한 적?

A.없습니다.

Q.자신의 얼굴에 만족한다?

A.절대...그렇지 않아요.

Q.남녀공학 같

의할?

A.없습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게임이죠. 밸런스게임!

둘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말해주시면 됩니다.노코멘트 찬스는 한번만!

Q.명예VS돈?

A.명예. 저는 보이는 곳에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거든요.

Q.누가 편해. 남사친VS여사친?

A.남사친.아무리 친하더라도 동성끼리 기싸움이 있기 마련이죠.

Q.일주일동안 손 안 씻고 살기VS일주일동안 발 안 씻고 살기?

A.발! 손은 보이는 부분이고 발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깐요! 신발로 숨길래요. ㅎ

Q. 2주 동안 인터넷(휴대폰, 컴퓨터) 없애기 VS 2주 동안 걸어서 통학하기?

A.휴대폰 없애기. 사실 저는 휴대폰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Q.명신고VS동명고?

A. 명신! 명신고등학교에 친구가 많거든요.

Q.다시 태어난다면, 여자vs남자?

A. 노코멘트

Q.이상형은?



누구에게나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멋진 친구가 한명쯤은 있죠. 이번 달 '내친소'의 주인공은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고생 '솔이' 진주제일여고 2학년 박솔이 학생입니다. [필통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필통홈페이지나 카톡(leeeltong1318)으로 신청해 주세요]

A.키 큰 남자. 얼굴은 잘 안 봐요. 제 기준에서 잘생기면 되죠.근데 저는 눈이 낮은 편이에요.

Q.필통 독자들에게?

A.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편견이 있는 분은 지금부터 버려주시고,소문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희망찬 새학기 되시길 바랍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솔이'를 검색해주세요. 박솔이라고 치면 안 나오니까 솔이라고 검색해주세요.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들어오세요!

[취재/ 염성민(중앙고2)기자]

[JOB을 잡아라] 나나애견 권모나 애견미용사를 만나다

미래직종 애견미용사! 강아지를 좋아한다 + 알파 그 무엇?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관련 직종들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천만을 훌쩍 넘어서고, 한 집 걸러 한 집 이 동물병원과 애견분양샵, 애견센터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거리 어느 곳을 가도 동물병원은 물론이고 애견 관련 로드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호 '잡을 잡아라'에서는 미래유망직종으로 불리는 반려동물들을 관리하고 꾸며주는 애견미용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애견샵 '나나애견'을 운영하고 있는 애견관리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미용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수 있으신가요?

A. 음 미용사는 학원을 다녀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배워도 돼요. 흔히 견습이라 하거 든요. 자격증이 있지만 아직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대학을 나오면 좋아요. 근데 기술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Q. 어떤 계기로 애견미용사가 되시게 되셨나요?

A. 저 같은 경우는 15년차거든요. 어쩌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그냥 단지 좋아서 어쩌다가 견습을 가게 되었는데 그냥 좋더라 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5년이 흘렀네요.^^

Q. 애견샵을 운영하시면서 애견으로 인해 겪은 힘들거나 황당한 일이 있으셨나요?

A. 음... 힘든건 강아지랑 그냥 막 노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미용실력뿐 아니라 훈련도 견비해야 하잖아요. 강아지에 따라 트라우마가 있는 애기들은 물기도 많이 물고 신경쓸 게 참 많죠. 저도 다친적도 있고 물론 우리 애



기가 다쳐서 직접 치료를 하기도 하죠. 편하다고 할 순 없는 직업이겠죠.

Q. 단순히 미용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군요. 응급처치 같은 부가적인 기술도 배우는지요?

A. 응급처치라기 보다는 최대한 상처가 안 나게끔 일을 하는 거죠. 오랜 경험이 있으니 강아지를 보면 대략 알죠. 미리 보호자와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도 하구요.

Q. 애견미용사의 하루는 어떤가요?

A. 보통 강아지들을 케어 하고 미용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근데 요즘엔 샵이라고 해서 미용만 하지는 않거든요. 분양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호텔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아지와 사투를 벌이고 봐야죠. ㅎㅎ

Q. 애견관련 직업을 바라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권해 주시고 싶은가요?

A. 애견미용사가 밖에서 보면 그냥 예쁜 강아지랑 놀고 있다고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험악한 강아지 도 있고 경우에 따라 물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죠. 쉽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애기들이 긴장하면 똥도 싸고 물기도 하는데 그걸 예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오줌도 묻어 뺐거든요. 똥 묻은 손으로 미용도 해보고. 쉬운 일은 아니예요. 어쩌면 그만큼 강아지들에 대한 애정이 더 필요한 직업인지도 모르죠.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ㅎㅎ

Q. 미래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A. 저는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애견인구가 늘고 또 갈수록 제도도 뒷받침 되겠죠. 그런데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미용도 좋아해야 되지만 강아지도 사랑해야 되죠. 동물을 좋아해야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직업 선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죠. 다른 조건도 충분히 고려해봐야죠.

Q. 나나애견의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운영은 직접 하시는 건가요?

A. 그렇죠. 직접합니다. 우선은 홍보를 위한 것이 가장 크죠. 또 미용이란 것도 지금 배운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세미나도 다니고 교육도 받죠. 그런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sns활동을 필요하답니다. 최신 애견, 미용 정보에 빨리 대처하고 제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애견미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제일 궁금합니다.

A. 강아지에 따라 물론 다 다르죠. 애기 무게에 따라 다르고 털을 깎을 모양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리고 일단 뽀뽀 밀겠다 그러면 썰싼 가격부터 시작하죠. 조금 꾸미시겠다 하면 추가 비용이 들구요.

Q. 개나 고양이들도 염색이나 파마를 하나요?

A. 파마는 고데기(?) 이런 걸로 웨이브 정도만 살짝~ 딱히 파마는 안 해요. 염색은 하죠. 염색을 한다고 해서 사람처럼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해서 원래 미용 시간에서 10분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Q. 애견미용은 어떠한 반려동물이라도 미용을 시켜주는 건가요? (원숭이,앵무새 등등..)

A. 그런 애들은 본적도 없고, ㅋㅋㅋ 특이한건 고슴도치 토끼 발톱 깎아 달라고 한 번씩 오신적은 있어요. 거의 99%가 강아지라고 보시면 돼요.

Q. 대부분 강아지 털 때문에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해야 털이 안 날리게 할까요?

A. 자주 빗질을 해 주는데 좋아요. 죽거나 빠진 털을 빗질로 자주 뽑아내 주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죠. 목욕도 일주일에 한번은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용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A. 고양이는 딱히 할 필요 없지만 하신다면 3~4개월에 한번, 강아지는 발바닥에 털이 자라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발바닥 털과 발톱을 깎아 줘야 해서 보통 한~두 달 정도 정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Q. 보통 강아지 털을 깎을 때 주인분 들은 못 보게 하는데 이유가 있나?

A. 보셔도 상관은 없으나 보게 되면 애기들은 엄마 곁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위험하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것이 첫째 이유죠. 안전한 애기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통은 뒤통나가려고 하니 강아지와 미용사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니 견주가 없으면 좀 덜하고 위험도도 내려 가죠~^^ 또 견주들도 한 시간 반을 기다린다는 것도 지루하죠. 그러나 차라리 볼 일을 보고 오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노견들 경우는 미용에 적응을 잘 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험이 있으니 같이 대기하는 것을 권해 드려요.

‘애견미용사’ 유망 직종으로 뜬다

반려동물시장 성장과 함께 전문가 인력으로 각광 받아

전문인력 수요 크게 늘어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관련 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고, 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전문인력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애견미용사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애견미용학원은 물론이고 실제로 학원마다 2~300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애견미용사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그만큼 애견미용사 직업을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애견데, 다만 애견미용사를 단지 반려동물의 털을 깎아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애견미용학원 한 관계자는 “애견미용사라 하면 일단 반려동물의 미용적인 측면에서 코트를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이런 미용적인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특히 반려동물의 골격 구조를 알아야 미용 스킬도 가능한 만큼 다양해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임상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견미용사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피부상태나 건강 체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적·경영적 마인드 갖춰야

반려동물의 코트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도 해야 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원장 진료로 이어주는 상담 스킬도 갖춰야 한다. 애견미용사는 기술전문 인력이지만, 병원 경영에도 일조하는 인력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동물병원 스태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동물병원 매출까지 좌우할 정도로 스태프들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중요해졌다. 애견미용사 역시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담 스킬을 통해 병원 진료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애견미용사 전문가 자세 필요

애견미용사가 되려면 일단 미용기술을 배워야 한다. 대학 반려동물학과에 진학해 애견미용을 배우거나, 애견미용전문학원에서 미용사 자격시험을 거쳐 애견미용사로 취업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고민보다는 어떤 자세와 마인드를 갖고 어떤 실력을 갖출 것인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각오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에는 애견미용 분야가 동물병원의 한 파트로서 일정 비용을 동물병원에 지불하고, 매출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독립된 애견미용샵을 운영하는 움직임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 바로 애견미용사가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애견미용사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당당히 그 역할을 해냄으로써 반려동물시장의 한 파트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글로벌미팅]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 카스완디를 만나다

"혼족, 덩크족?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결혼하길 원해요."

Q. 안녕하세요, 카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술을 공부하러 말레이시아에서 온 무하마드 카스완디(25)입니다. 저는 다섯 남매 중 첫째이고 현재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Q.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장품이나 K-POP에 관심이 많아 한국을 찾지만 저는 기술을 공부하고 삼성과 같은 기업에 취직하고자 왔습니다.

Q. 다른 나라와는 차별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우선 한국의 드라마를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 시티헌터 등등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많은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구성도 좋고 재미있다고 보니 자주 보게 되고 한글을 배우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진주성이나 경복궁 등 한국의 많은 문화유적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두 다 좋았지만 특히 전주의 한옥마을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세 번째로는 한국의 기술인데요, KTX와 같은 수송 기술과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 등등 말레이시아에는 없는 기술들이 한국에는 많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그 기술들을 잘 배워서 말레이시아에 전파하는 것이 제 꿈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매력에는 한국의 음식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 저는 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갓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두 다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지?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김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효과도 좋으니 다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매력은 화장품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압니다. 값이 저렴하면서도 질도 좋고 효과도 좋아 많이 선호해요.

Q. 말레이시아에서 K-pop은 인기 있는 편인가요?

A.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K-POP에 사람들이 미치죠.(웃음) 현재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등등.. 전 한국에서 1세대 아이들로 분류되는 가수들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Q. 한국의 문화와 말레이시아의 문화가 달라 느껴졌거나 곤란했던 적이 있었나요?

A.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는데 제가 무슬림이다 보니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돼지고기 음식점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에 비해 무슬림을 위한 음식점은 거의 없어 곤란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동네 아주머니나 아주씨들도 친절하고 한 번씩 음식도 나눠 주십니다. 말레이시아에도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에는 말레이시아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Q. 말레이시아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과정 내지는 수업 방식이 있나요?

A. 네. 한국 학생은 보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까지 총 12년에 걸쳐 교육을 받지만 말레이시아 학생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을 다닌 후 17살에 졸업합니다. 그 후 자신이 진학할 학교나 취업할 직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시간을 부여받고 그 시간 동안 스스로 결정해 사회에 나갑니다.

Q. 말레이시아의 학교 규칙은 엄격한 편인가

요?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딱히 없습니다. 한국과 비슷해요. 남학생의 경우 머리가 너무 길지 않게 단정히 잘라야 하고 여학생의 경우 머리 길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색이나 펌과 같이 머리를 변형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남녀공학의 경우 연애도 금합니다. 한국의 학교와 똑같지 않나요?(웃음)

Q. 말레이시아 학교에도 야간자율학습이 있나요?

A.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 있는데, 바로 기숙사 생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신청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파한 후, 조금의 휴식 시간을 갖다가 저녁부터 학교에 다시 등교해 자율 학습을 합니다. 그 시간에 숙제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그냥 말 그대로 자율 학습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학교가 마치면 끝입니다. 자유인 거죠.(웃음)

Q. 말레이시아는 학구열이 높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원을 따로 다니나요?

A. 네, 다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처럼 자정이 넘어서까지 다니지는 않아요. 공부를 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장 부족한 과목을 조금씩 보강하는 식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대학에 진학할 때, 말레이시아에도 한국의 수능과 같은 시험이 있나요?

A.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대학에 진학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각 과목 별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매긴 종이를 졸업 후 가지고 대학에 보내면 됩니다. 음... 아! 한국의 수시랑 비슷해요. 그 등급을 매기는 종이가 한국의 생활기록부와 동일합니다. 그걸 대학에 보내면 그 등급에 따라 합격되거나 불합격 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말이에요.(웃음)

Q. 말레이시아 사회는 학생의 연애를 지향하니까, 지양하니까?

A. 학생의 연애를 지양하지는 않습니다. '연애는 하되 스킨십은 자제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진한 스킨십을 할 때 무슬림의 경우 결혼할 사이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슬림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말레이시아에 중국인들이 많은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슬림이 아니니까요.(웃음)

Q. 한국에서는 혼족과 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말레이시아도 그렇습니까?

A. 아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 또한 낳고 싶어 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열에 아홉은 모두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거나 여자친구(남자친구)가 없어 결혼이 어렵다고 해요. 아, 보통 말레이시아에서는 남성은 24~25세에, 여성은 20~21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네 명의 동생들을 부양해야 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큰 다툼을 해도 아이 덕분에 헤어지지 않고, 무슬림의 성경인 코란에서도 아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죠. 잘 살지 못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3명의 자녀를 낳아요. 참고로 제 지인은 16남매랍니다.(웃음)



〈첫 여행이었던 부산 광안리에서〉



〈카스씨는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다닐때 스포츠 활동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공을 살려 만든 직접 만드는 자동차로 경주대회에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이 정도는 알아둬시다



1. 위치&수도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이며 북쪽으로는 태국과 접하여 있고 남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된 싱가포르와 접해 있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다.

2. 언어

말레이시아는 적어도 70여 개의 다른 어족에서 생성된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Bahasa Malaysia)' 외에도, 영어는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로서 상업과 공업에서 널리 쓰이며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교육을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어는 말레이어와 함께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언어이며, 집에서 자라날 때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된다. 말레이어와 영어 이외에도 만다린(중국어), 타밀어(인도어)가 사업, 여행, 산업, 라디오, TV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에서 쓰이고 있다.

3. 기후

말레이시아는 열대성 기후에 속해 연평균 기온이 26~27℃로 연평균 강우량 2000~2500mm, 평균 습도가 63~80%로 1년 내내 고온다습한 편이다. 기온차는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9~12℃ 전후로 낮에는 30℃를 웃돈다.

4. 종교

말레이시아는 다종교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일반적인 종교는 이슬람, 불교, 도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등이 있다. 이슬

람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을 위한 모스크 사원, 불교신도를 위한 절, 힌두교의 힌두사원, 그리고 교회와 성당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면적

말레이시아 국토는 우리나라 면적의 3.3배 규모인 33만 433평방미터로, 국토의 4분의 3이 밀림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6.환율

말레이시아의 화폐 단위는 '링깃'이며 원화 환율은 1링깃에 약 280원 합니다

7.인구

약 3,138만명/ 세계 41위

8.GDP

약 3,098억5,800만 달러/ 세계 37위

9.주요민족

말레이(61%), 중국계(29%), 인도파키스탄계(9%)

10.말레이시아의 국기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의 상징. 파랑·하양·빨강의 3색은 영국국기인 유니언 잭에서 취했다. 별과 달의 노란색은 왕실의 색 짙으며, 파랑 직사각형은 국민간의 단합 또는 이 나라가 영국연방에 속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줄무늬의 수는 연방을 이룬 13주와 연방정부를 나타내며, 파랑 직사각형 안에 있는 별의 14개 빛살은 13주와 연방정부의 조화 및 통합을 의미한다. 가로세로 비율은 2:1이다. 1963년 9월 16일 제정하였다.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대아고 1학년 1반 공화국 동지들에게

아자 대아고 전설적인 우리 반을 향해 자랑스러운 대바 누령 동지께서 1반 공화국이라고 자칭하신자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우리 반은 정말 병맛과 각각 가진 별명, 각종 님들은 동물들, 헤어스타일, 그리고 냄새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영재의 포크레인 쿨, 채현이의 고봉고봉 헤어스타일과 창영이의 고구마 5만 개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 성준이와 세웅이의 백옥 논쟁, 그리고 여름 방학날 날 갔던 계곡, 무엇보다도 어떤 이유로도 막았던 담임쌤님의 동동이 절대 잊을 수가 없지.

그래도 무사히 1학년을 마칠 수 있었던 건 우리 반 모두가 함께 착해서일 테고 서로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 ㅎㅎ 1년 동안 진짜 고생했다. 2학년 가서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From. 1반 흑장비 서경민

민지에게

우리가 만나지 벌써 66일이 됐네. 완전 배라다 방학도 같이 끝나가고 너네 집 앞에서 전화번호 물어볼 때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2달은 더 지났네 ㅋㅋ

우리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친구들한테 니트 입은거 괜찮냐고 마음에 안들어 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호들갑 엄청 냈는데 막상 만났으면 어떡해서 말도 별로 못하고 똥뽀한 커피죽고 웃기만하고 ㅋㅋㅋ 그 때 생 각하니까 엄청 웃기네 ㅋㅋ

방학 때 너 학원 안가는 날이면 너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때 너무 추워서 너 불 치기울까봐 못 만지고 그랬지? ㅋㅋㅋ 이젠 다 추억이어서 기분 좋네 ㅎㅎ 우리 다음에 같이 공부도 하고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 여름에도 놀러가고 그냥 매일매일 놀러가자 ㅋㅋㅋ 이대로라면 100일이든 1000일이든 아무 트러블 없이 사귈 수 있을거 같아 우리 오래가자 사랑해



진주여고 3학년 1반 경진이에게

경진아 안녕 나 인환이야~ 감작 선물이다! 우리 강래야 나 벌써 필통 몇 번째지? ㅋㅋ 필통 사랑합니다 ~^^

필통으로 맺은 인연 ㅋㅋㅋ 연애도 필통으로 해버리네 ㅎㅎ 아아 아마 내 생일 즈음에 나갈 건 같은데, 나 좋아해서서 고맙고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당근에 아주 큰 실수를 한 날이죠. 사회의 의미로 초선을 다해 씁니다. 죄송요 하하..

사랑한다 강 경진
From. 대 명문 진주고등학교 전교부회장



김인환

To.수능장인 김강명수

아저씨에게~

아저씨 안녕? 우와 이제 정말로 몇주 있으면 고3인데 고3 도시기전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뭐 그냥 이런 글 정도는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ㅋㅋ

일단 명수 너는 내가 2학년 들어 새로이 본 친구들중에 학기초부터 말까지 가장 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 ~ 물론 좋은쪽으로! 처음 봤을때는 뭐랄까 많이 활발하게 말하곤 했는데 알고 보니 사려 깊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만능인이다(놀림) 물론 장난기 많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ㅋㅋ

그런 너랑 내가 친해지게 되어서 나오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ㅋㅋ 뭐 지금까지 좋은일만 있었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변치 않고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지난 고2생활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부산에 갔을 때 있지... 누가 조금 늦게오게(누굴까?)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졌지만 그래도 해운대에서 애들이랑 애상한 컨셉샷 찍는 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ㅋㅋ

다시 한번 고맙고 고맙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해서 수능 대박나고 수능끝나고 여행가든 놀러가든 하자 ㅋㅋ 허프라이즈로 쓰려했지만 실패한 편지 잘봤길 바래 ㅋㅋ 명수아저씨 잘 있어!

ps. 싫음 말어라

from. 조진박사기

안녕! 제 영프로~?

나 애벌레다!! 우리 전부다 문과일본 어러서 같은 반 될 줄 알았는데 쌤이 다 떨어뜨려 놔... 우리 붙어있으면 안 되나봐 ㅋㅋㅋ 다른 반이라 한달에 한번 정도하기로 했으니까 꼭 만나야함. 안 도는 사람은 벌금 내기로 하자 ㅋㅋ 만날 같이 있으면 두둑하고 이상한 잔만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랬던 게 제일 재미있었던 거 같다.

우리 얼른 꽃도 보러 가고 놀이공원도가고 이쁘게 사진도 찍으러가자. 센터는 나네 ㅋㅋㅋ 그런줄 알아라... 공부 열심히 하고! 다들 하고 싶은거 다 이루고 멋지게 남현 탈출하자 ㅎㅎ 다들 사랑해

From. 애벌레



내 친구 종민이에게

안녕 종민이? 나 정연이야. 편지를 안 쓰다가 쓰려하니까 좀 어색하네. 너를 중3때 처음 봤는데 너랑 놀 때 마다 즐거웠어. 이번년도에도 우정 잘 지키고 오랫동안 놀면서 잘 지내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주 만나자! 그럼 답에 보자!

From. 정연이가



우리 진주여고 2학년 6반 친구들~

안녕! 우리는 세경이야~ 좋은 기회를 얻어서 누구한테 쓸까 고민했는데 6반 친구들 생각이 나서라고 ㅎㅎ 우리가 이렇게 감작 편지 쓰는 건 정들었던 너희에게 고마움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어... 너희들을 따뜻한 봄에 만나 어느새 추운 겨울이 되었고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더라...

6반에 배정되고 처음 만났을때 다들 어색했지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천천히 조금씩 친해질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 시간이 흘러 너희들을 알아가면서 다들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알았어. 항상 밝고 화목한 가족 같았던 우리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실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해 1년을 너희들이랑 보내서 기쁘고 힘들때 깨낼 수 있는 크고 소중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너희들의 기억속에는 어떻게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재미있었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 같아

항상 우리반을 위해 희생하고 수업시간 분위기를 잘 이끌며, 반장이라는 무게를 베풀 잘 해낸 우리 반장 지윤이, 너무 고맙고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부반장 영은이, 항상 말 잘 들어주고 장난쳐도 다 받아주고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써준 엄마같은 존재였어. 너무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우리반이 그렇게 화목하고 예쁜 반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반 친구들! 너희들 중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반이 아니야 알지? 우리 6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

이제 우리 고3이네??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우리 열심히 했잖아.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모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할게!! 친구들!! 사랑해!! 우리 이별 하오잉!! 고등학교 시절을 너랑 함께 보내서 너무 좋고 고마워~ 나는 항상 네 편이고 그 누구보다도 널 믿어 많이 부족하지만 너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게. 나의 가장 오랜 친구 하민아!! 항상 고맙고 미안해~ 너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같이 갈수 있는 친구가 되게!!!

From. 세경이아



To.씨질이들

안녕 ㅎㅎ 애들아 나 누구지 ㅎㅎ 그래 맞아 나 희원아!!!! 어찌다 보니 이렇게 편지를 쓸 기회가 생겨서 너네한테 이렇게 한번 써봐.

학기 초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내가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이따기에 귀 기울여주고 같이 물어주셔서 너무 고마워

솔직히 처음에는 나만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보니 소외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어. 근데 그 걱정이 진짜 쓸데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 오히려 나는 너네 덕분에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더라 처음에 리나 유도 구경 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정미 생일날 경기장 가보니 너무너무 무너너 신기하더라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2017년 1년 동안 너네랑 같이 놀면서 그냥 사소한 일상들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많이 행복했어. 아자하기 전 모여서 떡볶이 먹거. 날 좋은날 학교 벤치에서 떡볶이 먹을 때, 밥먹고 운동장 천천히 걸으면서 초소한 일상애기도 하며 사진도 마구 찍을때 등 너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야!! 그리고 너네랑 있을 때가 제일 나 같고 좋더라. 우리 이제 고3이라 만났어 자주 놀지도 못할 텐데 찡찡이만해서 놀고 수다 떨구 하자. 힘든 일이나 고민 있으면 답아두지 말고 얘기하자. 2018년에도 우리 예쁜 추억 많이 쌓자 그리고 항상 화이팅이야 애들아



수준이와 민서에게

내가 누군지 말 안 해도 누군지 알겠지? 친구들 ㅋㅋ 아무 생각없이 같이 농구하던 중학교3학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고2네 ㅋㅋ π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조만간에 고3 걸고 농구한판하자! 중3때처럼 매일 같이 붙어 있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세명에서 여행도 다니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다행이다. ㅋㅋ 계속 지금보다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다음부터 여행 다닐때 사진도 많이 찍자! 사진이 많이 없다. ππ

편지 쓰는 건 서툴러서 쓰는데도 오글 거리네 ㅋㅋ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밌게 잘 지내 보자 친구들~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 : [명사]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사람.

「잠깐~!! 알고 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2018.04.20. 38회

평소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4월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습니다.



국제 장애인의 날 (12월 3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전 세계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UN이 1992년부터 시행한 날로 매년 12월 3일을 기념한다.
1982년 12월 3일 제37회 UN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통과시킨 것에서
그 날짜가 비롯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장애보다 능력을 먼저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인재가 보입니다.



복음주의 신앙 질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8년 4월 15일(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 30분을 추천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28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변동가능) 당첨도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간이 있는 숫자퍼즐도,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깔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참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음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1.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2.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3.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독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illegible]

활동지정 배우처 | **[천전동]**글라스박스/채산당/제일좋은약국/소조백방/신월해어/초록마을/커피포트/콩세상/칠암주민센터/녹원어린이집/진주남교회/크니크니/석옥호수학/동훈서점/신상록서점/소문난서점/신한샘서점/커피북은<신안,평거,이현동>바람이불어오는곳/블레스유/황금알강장탕/한빛교회/정인미소/신세계수영장/만리장성(시해방)/와비/피아노/해의언정말/우파랑/큰비위서점/잔치문고/새하학원/진주명예교회/아이클럽진주점/임정현물리왕실방송사/책/대마서점/여중문고/성지향(시나지역)제일안경원/등산교회/다림/죽형/태오김밥/감각사랑/진주교회/포스타/포스타/문학당서점/예원/대량서적/배기/필지정서점/한양꽃집/YMCA/열도교복/함성서/교회사/디스커버리/노스페이스/구단현행/플랙스카/릴라아웃렛/오프로드/노크레이프/요미요미/카요일두리/무학/태돌출판/본간건축/타고출판/씨네/저주공로/부내/대문리/엠티쓰/조지루시/대영서점/독후잡지시장/WCA/조선서관/일본도서관/서가이비/티/노티/세프/캐러/진주첫날/노트극장/웨들나우/교문서점/매곡문고/같이프렌즈/노드레고/노드코미즈/노드코미즈(숙종,봉곡동)/문학박물관/홍성서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